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갓세마에서 십자가에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40일 앞두고 드리는 40일간의 기도는 곧 부활 영광을 바라고 승리의 길로 가는 골고다의 행렬입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갓세마에 하신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 3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3월 8일 (토) 제 147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말씀묵상과 함께 더 내려놓는 시간

2014 사순절 시작...그리스도의 고난 묵상하며 닦아가는 기간돼야

사순절은 성 수요일을 처음으로 부활주일 전날인 성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일컫는 절기로서 성도들은 이 기간에 기도와 회개, 절제와 훈련을 통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며, 올해 사순절은 3월 5일에 시작돼 4월 19일에 끝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는 기간인 사순절이 5일부터 시작됐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간으로,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성결한 생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통상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로 부르는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부르는 것은 회개할 때 머리에 재를 뿌리던 옛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으신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 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해,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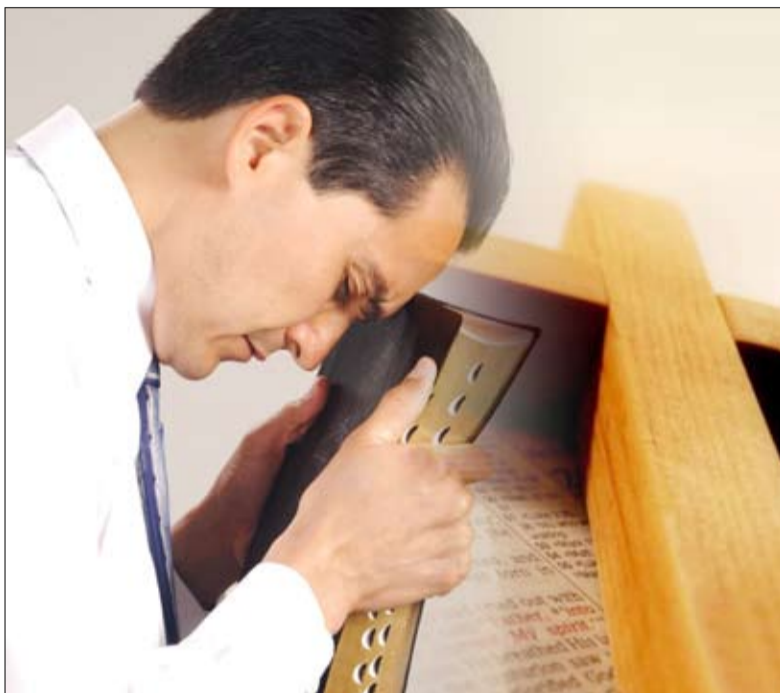
또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로 영접되는 성도의 성례식이 있게 되는데, 세례 예비자들은 이때 세례와 입교(入敎)를 받기 위해 두 주간의 준비기를 두고 금식과 기도로 신령한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때 부활절에 있을 세례식

을 준비하는 세례 예비자들은 물론 이미 성도로 영접된 사람들 모두 금식과 기도 생활에 힘썼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독교 신자들은 평소와 달리 절제된 생활로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과 구제생활, 새벽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쓸 것을 권면 받고 있다. 이번 사순절에는 전체 교회가 물질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까이 증언하는 것을 보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가까이 끌어안으신다.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고, 당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자기부정을 위한 시의적절한 때다. 우리도 자신의 가난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가난은 고통을 준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회개의 차원이 없다면 어떤 자기부정도 실재가 아니다. 크리스천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랑은 믿지 않는다.

금식 기도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둔 40일 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이 돼야한다

습이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금식의 기간과 그 엄격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리고 하늘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그 백성된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금식 기도는 초대 교회 시대부터 행해졌다. 오늘날 행해지는 금식 기도는 엄격했던 초기의 형태에서 많이 변형되어 절식(節食) 기도의 형태로도 행해지고 있다.

구제와 선행 베풀기
사순절에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신이 행해졌다. 특히 사순절에 행해지는 금식 기도를 통해 주

님의 고난에의 동참, 불의한 자신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실재에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받아 이를 실천함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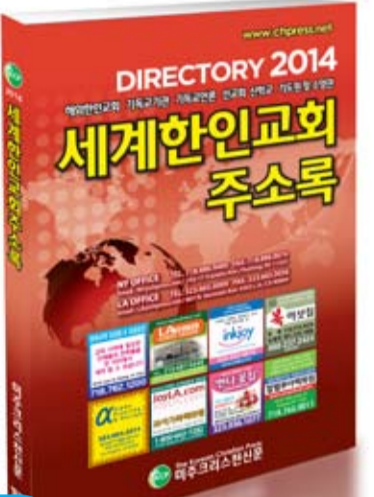
사순절 주일예배
사순절 절기 안에는 6번의 주일이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각 주일에는 단계와 특색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2014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4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서적 (718)762-1200
할렐루야 기독교책화점 (718)762-0011
할렐루야 기독교책화점(NJ) (201)373-002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 (714)636-7430
복음사 (562)865-4949
생명의말씀사(LA) (213)382-4538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교책화점 (323)766-8793

▶ 기타지역

커티컷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일리노이 시카고기독교방송국 (847)583-0191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볼티모어교회 (410)337-9448
버지니아 주 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노스캐롤라이나 벅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전기회계사 (704)332-5656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2면
사탄 존재 생략으로 복음 희석 경계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9면
리처드 포스터와 레노바라 ...
조진모 목사(필라델피아연합장로교회)



16면
인터뷰
한국화 화가 유혜은(주님세운교회 집사)

3월 9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시계 오전 2시를 3시로 돌려야

올해 서머타임은 3월 9일(주)부터 시작된다. 새벽 2시를 3시로 한 시간 빨라진다. 주일예배에 늦지 않도록 토요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시간을 돌려 놓아야 한다.

2011년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 장로교(PCUSA)사회봉사상"을 수상하고, 2012년 공동체 시리즈(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를 출간하여 한인 이민 목회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2014년 "디아스포라 사회선교 센터(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를 봉헌하는 주 예수 교회가 "선교적 교회 세미나(Missional Church Seminar)"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제1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

-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적 교회로 거듭나기 -



※주제강의※

강의1: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e of Missional Church)

최형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Heart Stream 한국센터(선교사 멤버케어센터) 공동대표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역임(2004-2011)
현,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회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 Associate

강의2: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 (Missional Church and Global Mission)

김종국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 30년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 학장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KWMF) 공동의장

강의3: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목회 실제 (Missional Church and Diaspora Ministry)

배연찬 목사
주 예수 교회 담임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
미주기아대책(KAFHI) 이사장

강의4: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 (Congregational Life of Missional Church)

노승환 장로
주 예수 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연장방문※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참여 (Practicum)

노숙자 숙박사역 (Caritas / 교육관)
노숙자 식사사역 (Monroe Park / 공원)
빈민촌 주택보수 (Renew Crew / 리치몬드 시)
산골빈민촌 사역 (Appalachia Service Project - 영상)
인종화합 합창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 영상)
한국음식문화축제 (Korean Food Festival - 영상)

일 자 : 2014년 6월 12일(목) 오후 3시 - 14일(토) 오후 3시
장 소 : 주 예수 교회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숙 박 : Sheraton Richmond Park South Hotel
등록인원 : 30명
등록비 : \$100 (교재 포함 및 숙식), 선교사(등록비면제)
등록처 : 주 예수 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Presbyterian Church (USA)

주 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DSMC)
주 관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PCUSA)
주 역 한인 세계선교 협의회 (KWMC)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804)560-7500,7509 Fax(804)560-7514



시론

사슴나뭇잎에서 가꾸는 텃밭 이야기(2): 잡초 사랑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유난히 따뜻하고 가물었던 캘리포니아의 겨울을 떠나보내는 봄비가 며칠째 계속 내렸습니다. 얼마나 대지가 가뭄에 목말라 있었는지 피부어대는 빗물을 마치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그치지 누렇게 타 들어갔던 잔디밭과 앙상하게 빌거숨이 되어 버렸던 참나무 가지들에서 새싹이 돌아나고 새순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고 양치바른 언덕 위

에선 꽃밭들이 서둘러 만개하며 미색을 뽐내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자 뒷마당에 나가 쌓인 낙엽도 치우고 텃밭에도 새로 부식토를 썩여 파종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랜 가뭄 속에서도 텃밭에는 수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따뜻한 눈길과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비 한 방울 없이도 어느 누구의 보살핌 없이 썩어죽고 아름답게 그 소박한 자태를 드러낸 소위 잡초들이야말로 봄의 진정한 주인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잔디밭의 잡초 중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민들레입니다. 미국 땅에서 자라는 대표적 잡초들 가운데는 민들레 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엉겅퀴, 씀바귀, 고들빼기, 질경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잡초들의 악화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건강식품들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요즘은 가정에서 직접 채취하여 발효액으로 만들어 먹거나 요리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건강식품 상점들에 가면, 상기 잡초들에서 추출한 약들이 고가에 팔리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초제나 농약을 뿌리지 않는 유기농 농사를 짓는 발인이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러한 잡초들이 농작물과 함께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잡초들은 오히려 농작물에 유익한 곤충들의 서식을 돕고, 심지어 해충들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잘 것 없는 잡초들마저도 인간과 동물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천연 약재로 쓰임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심어 놓은 잔디밭이 천연적인 꽃밭과 풀밭을 밀어내고 말았지만, 요즘은 환경친화적인 정원이나 유기농 텃밭을 가꾸는 가정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선한 먹거리와 천연 약재로서의 효능뿐만 아니라, 각박한 도시의 삶속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화려하고 비싼 꽃이나 화분에만 속아온 눈이 뜨이면, 야생화나 잡초와 천연 허브들이 어우러진 보석과도 같은 건강한 텃밭 속에서 사시는 재미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도 돌아보면 참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채 어리석은 생각과 편견 속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닌지 회개해 줍니다. 재력 있고 유능한 장로, 음식 잘하고 목사에게 잘하는 권사, 똑똑하고 충성하는 안수집사들만 있으면 목회는 걱정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치 작은 텃밭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 있고 풍성한 열매를 자랑하는 스타플레이어도 소중하지만 이름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텃밭을 지키는 잡초 같은 신자들이 있어서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해갑니다. 작년 가을에 수확을 하면서 함께 뽑은 잡초들을 낙엽과 함께 부식시켜 만든 흙은 비료가 되어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일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작년 봄에 민들레 뿌리를 말려 커피 원두처럼 볶아서 차를 만들어 놓고 성경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오는 교우들을 대접했더니, 그 향과 치유 효과에 반한 분들이 올 해는 자신들도 유기농 허브차를 만들겠다고 자랑합니다. 차 한 잔에 마음의 문을 열고, 차 한 잔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으며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의 텃밭에는 결코 잡초도 값비싼 화초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탄 존재 생략으로 복음 희석 경계

CT, 영화 "Son of God" 미국 문화 영향 반영

화제의 기독교 영화 "노아"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기독교 영화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2시간18분, 관람등급 PG-13)이 지난 28일 미 전역 3000개 극장에서 20세기 폭스사를 통해 개봉됐다(www.sonofgodmovie.com/home.html). 이 영화의 제작을 맡은 로마 다우니와 마크 버넷 부부는 지난해 3월 미국 케이블 채널 히스토리(History)를 통해 방영돼 화제를 모았던 "더 바이블(The Bible)"의 제작자이기도 하다. 천지창조에서 사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내용을 10부로 구성했던 "더 바이블"은 매회 1,000만명 이상 시청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 영화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스펜서와 예수역을 맡은 포르투갈 출신의 배우 디오고 모가도(Diogo Morgado) 역시, "하나님의 아들"에서 감독과 배우로 활약한다.

이 영화는 미니시리즈 "더 바이블" 중 예수 그리스도가 출연하는 장면을 별도로 편집하고 또 TV로는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을 모아 재구성 하는 형식으로, 주 내용은 예수의 출생부터 부활까지의 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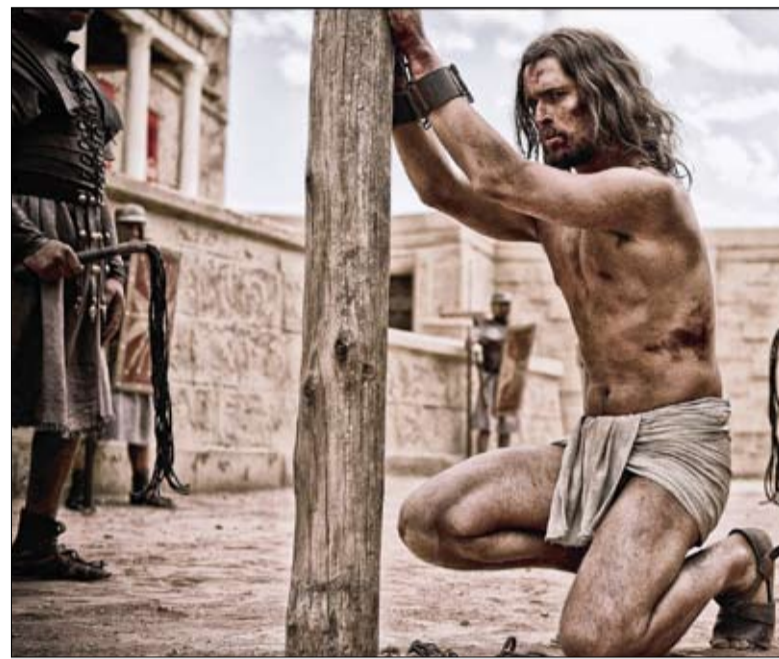
이미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공식개봉 하루 전 27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대형극장 8개 상영관 전체를 대관해 무료시사회를 열었다. 미국의 수많은 교회에 입장권을 구매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또한 기독교 기업들과 대학에서 영화입장권 선물주기에 동참했다. 무료시영 이벤트로 미리 영화를 본 관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흥행에 크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미국교회에서 발 벗고 나섰다.

"예수의 사랑과 부활"을 중심으로 그린 이 영화는 기존의 저예산 기독교영화와는 다르게 헐리우드 메이저급 영화사인 폭스사가 거액을 들여 참여했다.

이처럼 성경을 소재로 한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거액의 제작비를 들

개봉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기에 흥행 기록 즉 제작자들의 의도, 밀레니엄 세대에겐 적절한 상황 설정과 정말 잘생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파가 얼마나 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교회나 한인교회 그리고 히스패닉교회들까지도 단체로 구매해 섬기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어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더욱 더 전도에 힘쓰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따라서 개봉 당일 28일에만 올린 수익 26,500,000달러에는 교회들의 예매가 단단히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번 영화 "하나님의 아들"이 세대상 즉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문화에 젖어 진정한 복음이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크리스천티비투데이(CT)는 그 위험성을 애즈베리신학교 신약학 교수(Craig S. Keener)의 기고(Casting the Devil Out of the Jesus Story: Why the 'Son of God' film excludes Satan from the Christ story-and what's at stake)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본디오 빌라도'도 현재 제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속화와 무신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철저히 기독교적 내용으로 큰 성공을 거둔 "더 바이블"의 인기 때문 "기독교적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가 과연 헐리우드 영화계나 NBC와 같은 정규 방송을 통해 재현될 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마디로, 영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시련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작자 로마 다우니와 마크 버넷은 미디어가 이번 영화에서 예수보다는 사탄의 존재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사탄을 영화에서 없애는 것으로 결정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기독교에서 사탄은 "세상을 다스

히스토리 채널서 인기 끈 "더 바이블" 중 별도 편집/삽입

복음서마다 등장하는 사탄의 존재 확실히 알려야 복음적

여 만들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히스토리' 채널을 통해 방영된 미국 내 TV미니시리즈 '더 바이블(The Bible)'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를 통해 기존의 시청자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제작 의도가 있기에, 폭스사가 선택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미니시리즈 '더 바이블'은 성경 이야기를 재현한 10부작 TV 드라마로, 지난 3월 첫 회부터 1,310만 명의 시청자를 모아 지난해 미 케이블TV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노아의 방주부터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성경의 주요 내용을 압축한 내용으로 성경 이야기를 쉽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일한 맥락에서 비슷한 시기인 3월에는 러셀 크로우 주연 '노아(Noah)'가 개봉 예정이다. 영화 '노

아에는 앤소니 홉킨스, 제니퍼 코넬리, 엠마 왓슨 등 인기 배우들이 대거 출동한다. 제작비만도 1억3천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등 성경 창세기 사건들이 특수효과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폭스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헐리우드에 승부수를 던졌다면, 파라마운트는 '노아'로 미국인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려고 한다.

이 외에도 성경을 다룬 영화가 다수 제작되고 있다. 20세기 폭스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엑소더스(Exodus)'를 제작 중이다. 엑소더스는 출애굽 내용을 주로 다루며 크리스천 베일리 주연을 맡았다. 올해 성탄절에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담은 '마리아-그리스도의 어머니(Mary, the mother of Christ)'가 개봉될 예정이다. 소

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룬 윌 스미스 주연의 '더 리DEM션 오브 가인(The Redemption of Cain)'을 제작 중이다.

또한 NBC방송국 역시 '더 바이블'의 히트에 자극을 받아 2015년 방송 예정인 'A.D.' 제작에 들어갔으며,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선

리는 악한 영(엡6:12), "유혹하는 자",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자" 등으로 불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유혹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서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본교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최대속위해 피흘리신 예수그리스도 묵상

2014 사순절 시작...그리스도의 고난 묵상하며 닳아가는 기간돼야



(1면에서 계속)
 사순절의 첫째 주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받으셨음을 생각하며 지낸다(마 4:1-10).
 사순절 둘째 주일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마 4:11).
 사순절 셋째 주일은 빛과 어둠의 대립 즉, 빛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말씀(요

1:1-18)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
 사순절의 넷째 주일은 사순절 중간에 끼어 있어 '사순절중절' 또는 '휴양 주일'(休養週日)이라고 불린다. 이 주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한 고난과 사단과의 싸움 등을 다루는 사순절의 다른 주일과는 달리 딱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으로 말씀을 삼는다(마 14:13-21).
 사순절 다섯째 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일의 명칭은 주님이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때는 가롯 유다에게 팔리어 고난 받으셨던 주님에 대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마 20:18,19).
 사순절 여섯째 주일, 즉 종려주일(Palm Sunday)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종려나무 가지들 흔들며 환영했던 군중들에 관계된 말씀을 본다(마 21:1-11).

소망 칼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육중서신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빌4:9)고 하였다. 이는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고, 직접적인 개인지도를 통하여 받고 설교를 듣고, 그의 생활을 봄으로써 느끼고 깨달은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이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쇼(George Bernard Shaw)는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우물쭈물하고 바로 실행하지 않는 삶의 허망함을 탄식한 것이다. 성공은 못해도 후회하는 인생을 아서는 안 된다. 인생에서 삼등은 괜찮다. 그러나 삼류(三流)는 안 된다. 비록 가난하고 못 살아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며 품격 있는 인간, 덕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생활을 하되 어물어물, 우물쭈물 하지 말고 신앙 양심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말로는 세세히 가르치지만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마 23:3)고 말씀하셨다. 이는 "교회서 가르치는 자가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행동을 따라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다.

신앙생활이란 교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에 옮기는 생활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3)고 하였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교회서 배운대로만 행하면 교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나타내게 된다. 거짓이 없는 진실을 행하게 된다. 화평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게 되고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 남을 모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 불친절하거나 싸우지 아니한다. 남을 동정하고 배려하게 된다.

1972년 경 라이프 프레이어에 기사가 발표된 적이 있다. 당시 월 남전이 한창일 때 낚시바늘(Fish Hook) 지역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때 매우 심각한 적군의 부상병 구출작전에 온갖 정성을 쏟으며 최선을 다하는 위생병의 인종 넘치는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 해 지극 정성으로 치료를 돕는 지극히 선한 행동이 온 세상을 감동케 했던 것이다. 적군은 심한 부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려 목숨은 점점 꺼져가고 목이 타고 혀가 말라붙지만 물을 전혀 마실 수 없는 부상병을 비행기에 태워 큰 병원으로 옮겨가는데 위생병이 그의 곁에 꼭 붙어있어 친절히 돌보면서 부상병이 너무 목이 타 괴로워하니 자기 입으로 한모금 물을 머금어서 그 부상병 입에 흘려 넣어 주곤하여 구출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소식을 들어 알게 된 미국 레이더 국방장관이 즉시 그 전선에 축전을 보내어 미국 병사들을 크게 격려했다. 그 미국 위생병이 적군의 부상병을 구출하기 위해 그토록 온 힘과 정성을 쏟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 종교기자가 질문을 했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위생병이 대답하였다. "나는 그저 군위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저 교회서 배운 대로만 행하면 온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빛내게 되기를 바란다.

사탄 존재 생략으로 복음 희석 경계

(2면에서 계속)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악마를 영적인 존재로 해석한다. 반면에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정신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주술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신학자들은 인간을 경쟁시켜 사회적인 약자를 외면하거나 희생시키는 신 자유주의를 사탄의 체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 영화 제작진들의 결정은 바로 미국인들이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주소를 직접 반영한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바나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들까지도 거의 60%가 악마는 단지 상징으로만 받아들일 정도다. 겨우 거듭남을 체험한 크리스천들만이 사탄의 인격적인 실존을 믿고 있다. 미국인들은 그러면서도 거의 50% 정도는 상징에 불과한 사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는 사탄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사탄을 통해 일상 영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애매한 이중성을 미국인들은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13년 설문 조사(A 2013 YouGov poll)에 따르면, 미국인 중 57%가 악마의 존재를 믿고 있고, 28%만이 존재를 부정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이중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라이프웨이 설문은 밀레니엄 세대 중 40%가 사탄을 상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영화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탄의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대중에게 공개됐을 때, 과연 "예수 이야기" 즉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가에 의문이, 복음주의 신앙인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답은 "그렇다"이다!

물론 보통 크리스천들이 복음 즉 예수의 삶에 대한 큰 그림을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세세한 것들까지는 말하지 않게 된다. 사탄의 등장과 역할도 자주 빠지게 되



는 요소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 역시 사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에 대해 증거했다(행 10:38). 따라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고, 곧바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했고, 모든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했기에, 우리가 그들을 따라하는 것에

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복음서에는 사탄이 30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고, 사탄이 행하는 다양한 행동들이 설명된다.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직면하는 도전들이 무엇들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뒤 홀로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 뒤에 높은 곳에 올라가 마귀에게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 사탄은 그

를 떠났고 천사들이 날아와 그를 도왔다고 전한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게 된다. 이처럼 사탄은 실제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공생애의 시작을 바로 사탄과의 대적, 만남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요한복음

에서도 악으로부터 보호를 간구하고 있다(17:15).

결론으로, 복음서에서 우리는 사탄에 대한 구약 성경과 고대 유대 전통의 열매를 볼 수 있다. 바로 참소자, 속이는 자 그리고 유혹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 제작자들이 사탄의 존재를 생략해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사탄을 말하지 않고서도, 예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은 복음서에서 불분명한 부분으로 등장하며, 이 내용들을 통해 사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준다. 예수는 유혹을 이겨내셨고, 악을 이기셨으며,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치유하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사탄의 피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유혹이나 협박을 십자가로 단번에 무효시켰기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 같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예수의 말씀은 사탄의 어떠한 감언이설보다 더 강력하다. 사탄과 그의 악령들은 마치 예수로 하여금 끌고다에 이르는 길을 힘들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능한 힘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고, 악령의 갖은 획책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담임목사청빙

San Francisco 근처에 위치한 콩코드 침례교회는 담임목사님은퇴를 앞두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1. 미 남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미국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분(M.Div)
2. 남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이나 가입 가능하신 분
3.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인 경우 미남침례 신학대학원에서 6개월 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합니다.
4. 목회경력10년 이상이신분 (담임목사경력 3년 이상 포함)
5. 영어 한국어를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분
6.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제출서류

1. 본인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동봉)
2. 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님(신앙간증, 사회경력, 사역경험, 목회비전)
4. 추천서 2부(동봉)
5. 최근 6개월 내 설교 DVD 2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교회 웹사이트 www.ckbch.org 에서 다운받으세요.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마감 2014년 6월 30일
 제출처: P.O.Box 3073 San Ramon CA 94583 Att. HONG KI HAK
 문의: 청빙위원장 홍기학 안수집사(ckbch2014@yahoo.com)

Concord Korean Baptist Church
 5000 Hiller Lane, Martinez CA 94553 / www.ckbch.org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Turin(Torino)의 신앙유적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고통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힘은 그러한 목숨을 건 모험과 용기를 선택하게 합니다. 편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선배들이 신앙을 위해 투쟁했던 현장을 돌아보는 일은 새로운 도전과 현재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고로 권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나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현장을 찾아보라고 말입니다. 그 현장에서 수백 년 전 아주 열악했던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견디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꿈과 세상의 영광을 헌신처럼 내던져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몸을 던졌던 거룩한 고난의 현장을 말입니다. 그런 성지 중 하나인 튜린(Torino)의 골짜기 앙그로나(Angrona)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일찍이 알도의 후예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 숨어들었던 현장입니다. 리옹에서 알도(Peter Walo 1170-)라는 부자가 영적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된 것 밖에 없었고, 설교 역시 라틴어로 하였기 때문에 거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 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어학에 박식한 수사를 고용하여 성경을 불어로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공관복음을 읽어 나가던 중 눅10:1-12절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눅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

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신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전도자를 파송했습니다. 돌 씩 짝을 지워서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기 힘든 산골짜기 등,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자는 자립하면서 그 일을 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단순한 생필품을 가지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빛이나 옷핀, 가위 실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수단이 있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 운동은 중세에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찮은 것에 불과한 이 운동에 성령께서 얼마나 맹렬하게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불란서 남부와 이태리 그리고 독일 중부, 그리고 보헤미안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습니

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허락하였던 바티칸 당국은 설교를 불허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협박을 하면서 더 이상 이 운동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런 핍박이 거세어지자 이들은 모든 재산을 피에몬테의 산 계곡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열악한 골짜기인데 말입니다. 저들은 오직 예수만을 믿고 소망했기에 이 깊은 골짜기, 눈이 한없이 내리는 열악한 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한 경사로 이루어진 곳으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비애의 눈이 많이 내리는 알프스 산맥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바티칸 당국은 스페인의 군대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흐

르는 강물을 빨강계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르쳤던 깊은 골짜기에 있는 너와집으로 만들어진 작은 신학교, 그리고 숨어 예배드렸던 바위 동굴들, 이런 곳들을 방문한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신앙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삶을 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버리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유럽 목회자 세미나(4.28-5.2)를 밀라노에서 개최하고 그곳을 방문합니다. 모두 오셔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푸 / 른 / 초 / 장

김종훈 목사
(뉴욕 예일장로교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베짚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월동 준비를 잘해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었지만, 베짚이는 여름동안 열심히 놀다가 겨울에는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적 느낌으로 좀 변경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가 여름 내내 고생하며 식량을 많이 쌓아 놓았지만, 그만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허리를 다쳐 몸져 누워서 그 쌓아놓은 것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짚이는 열심히 노래연습을 해서 CD를 만들었는데 대박을 터트리 돈방석 위에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개미가 몸져누웠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특유의 근면, 성실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짚이는 CD로 대박을 터트리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만 번 돈으로 유흥과 마약에 손을 대어서 돈을 다 탕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개미의 변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변화입니다.

교통의 발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계로 이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야말로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해왔던 서구 교회들의 쇠퇴와 함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비서구 교회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독일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독일 무슬림은 가정 당 아이들을 9.8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무슬림은 야곱처럼 4명의 부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인은 가정 당 약 1.9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독일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은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25-30년이 지나면 무슬림과 백인의 수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슬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슬림은 코란이나 같이 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코란을 믿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무슬림이므로 종교편파시대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영국의 6천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중 3천5백 개가 무슬림의 모스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세계선교를 이끌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평등이라는 잣대 아래 신앙을 찾아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In God We Trust"라는 슬로건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평등하니 기독교만 특별히 강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계속되는 학교 총기사건, 동성 간 결혼의 합법화로 말미암은 전통적인 가정질서의 붕괴, 오락용 마리아나의 합법화 등은 우리와 우리 자

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라고 말합니다. '디아'(dia)라는 말은 '흩어지다'라는 뜻이고, '스포라'(spora)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씨앗, 마치 꽃씨가 바람을 따라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세계 각 나라로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흩어졌다고 말하지만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

무시할 수 없는 영적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시대의 주역으로 한국 사람을 쓰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역사적으로 형성시켜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영적인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민족이 고난당하는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민족은 6.25 전쟁을 경험했

어려움을 겪는 민족을 향하여 가진 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정성껏 키운 자녀들은 영어와 다민족 문화 환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바른 정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민족을 어떻게 가난 가운데 일으키셔서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로 사용하시는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의 정체감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세상에 존재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survival life). 또한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successful life).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significant life). 이 의미 있는 삶을 통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한 지역에서만 아니라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와 선교지들이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나의 꿈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교회들의 비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우리 민족의 각성을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산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납시다. 그리고 빛을 발합시다. 여호와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1:1-3)

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은 한국 민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170개국에 75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수가 약 5천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씨앗처럼 흩어지면 그 나라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회사를 먼저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세우지만, 한국 사람들은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만큼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드러지는 모든 예배, 선포되는 모든 말씀, 울려지는 모든 찬송, 드러지는 모든 기도를 합하면 결코

고 보릿고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수난을 겪은 민족이기에 수난 당하는 민족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가 따라가지 않으면 세계적인 선교강국으로 설수가 없습니다. 2013년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전쟁직후에 GNP가 76불이던 나라가 전후 60주년을 맞이하면서 3만 불에 육박하는 나라 되었습니다. 삼성과 LG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조선산업, 건설 산업,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는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기주의적으로 우리만의 만족을 위해 물질을 축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 본 한국 민족이

미주오순절연합 총회

교회가입 및 전도사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4년 본총회는 4차원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목회자육성및선교와상호협력목회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 (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남.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 (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4) 목사안수
① M.A., M.Div sms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② B.A sms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파 목사 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에베소서 6장 2절
- 3) 설교: 자율적으로 1편 제출 (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 (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 (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 (소정양식)
- 4)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 (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4. 제출기간

2014년 3월 14일(금)

5. 기타

4차원영성 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 가능함(총회 조용기 목사) 봉사 및 사회 참여(영성 조용기 자선재단 연계한 사회구체 활동) 교제와 교류 (정기모임 Net-Work 형성 한국-미국)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 318-9521 / 최명상 목사 (323) 317-3749

미주 오순절 연합총회(구 순복음 북미수호총회) 총회장 김두경 목사 총무 석종규 목사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과 세계 속의 동성결혼 그 이후

미국은 지금 동성결혼을 미국 전역에 합법화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가치관 싸움이 이곳 저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50개주와 워싱턴DC 중에서 현재 총 17개의 주(States)가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지만 아직까지 33개의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더 강력합니다. 사실 많은 미디어에서는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은 게 있는데, 정작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곳은 17개주 중에서 워싱턴(2012년 12월 9일), 메인(2012년 12월 29일)과 메릴랜드(2013년 1월 1일) 3개주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개주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매사추세츠만 빼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2008년 이후 마치 도미

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시민들은 미국에 적어도 30-40%의 동성애자들이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전환자들과 양성애자들까지 합쳐도 미국 전역에 통틀어 3%(킨시 연구) 밖에 안되는 동성애자들을 30-40% 이상이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디어의 힘인 것이지요. 특별히 허리우드의 힘은 매우 큼니다. 허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와 아이들이 보는 만화까지도 세상의 유행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가치관들을 투입한 작품들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만 혼돈시키는 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혼돈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대를 분별하고 상

와 가슴에 심겨진 문란한 성적 내용들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덴마크에 이어 네덜란드도 1989년 후반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자마자 바로 다음해인 1990년에는 성관계 할 수 있는 연령을 16살에서 12살로 내려버렸습니다. 아동소아애자를 위한 것이지요. 몇년전 국제 정치적 이유로 지금은 다시 16살로 올렸지만 그동안 무너진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화는 그 나라에 깊이 뿌리박혀있다는 아픈 사실입니다. 2001년 동성결혼을 정식으로 합법화하자마자 일부다처제에 대한 법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여 결국 2005년에 일부다처제를 이르면 바뀌어서 정식 합

는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속의 빛과 소금으로 근신하며 사람들을 일깨우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아주 간혹 어떤 분들은 저희 TVNEXT가 정치운동을 하는 그룹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희 팀은 정치엔 전혀 관심 없었던 중보기도만 15년 넘게 함께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정치"라면, 저에게 그것은 더 이상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가르치는 학생들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이 공립학교에서 버젓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소일 뿐입니다. 만일 누군가

정치인들과 미디어로 인해 미국내 3% 동성애자가 3, 40%로 알려져 동성결합-동성결혼-일부다처-근친상간으로 발전되는 유럽현실 경계

노 효과처럼 몇 년 사이에 16개 주에서 다 통과되었습니다. 한 대통령이 국가의 도덕과 윤리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지요. 그 뜻은 국민의 투표 없이 17개주 중 14개주가 판사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통과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미디어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뉴스들이 나가고, 마치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미화시켜 방송하고 신문기사로 나가게 함으로 정작 다수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목살시키고 왜곡된 뉴스들로 시민들을 혼돈 시켰습니다. 결국은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곳은 3개주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다 정치인들과 법관들의 소견으로 결정들이 이루어졌다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미디어들의 왜곡된 뉴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2011년과 2012년에 행해진 한 설문

황과약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무기입니다. 유럽은 세계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그 이후 도덕과 윤리 기준들이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동성결혼과 동성결혼합법화가 거의 같은 권리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입니다. 1989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5년 후인 2004년 덴마크의 한 교육청은 6만여 명의 청소년에게 성교육 영상자료를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교육 자료 내용 중에 성관계의 유형중 사람과 동물의 성교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학부모들의 항의에 의해 그 교육 자료는 교육청측에서 완전히 없애버려 지금은 찾을 수가 없지만 한번 그 자료를 본 청소년들의 머리

법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Threesome 즉, '3명 이상의 어른들이 함께 성적인 관계자들로 연합하여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한 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Max Planck Institutes in Germany 리포트에 의하면 근친상간 또한 허락하였습니다. 스웨덴 역시 2004-200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2009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근친상간인 Half-sibling 이복형제와의 성관계를 법적으로 허락했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내가 눈감고 모른 척 하고 나만 열심히 산다고해도 세상이 좋아지지도 다시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하겠지" 또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태도는 더 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입각하여 깨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

"정치"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고 위협한다면 그것은 절대 정치라고 방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고 다시 빼앗아야 할 우리들의 소중한 가정이며, 결혼생활이며, 자녀교육이며, 학부모들의 권리이며, 하나님이 미국으로 축복하신 사회와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서 누렸던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세대도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미국 선조들의 피와 땀이 영긴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미국 안에서 미국의 신앙의 자유와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선교단체들을 위해, 또 TVNEXT를 위해 꼭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신학교를 졸업하여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사역을 하기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좋은지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버에서 정신구 목사

A: 두 번에 걸쳐서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탁월함을 드러냈던 목회자와 설교자와 신학자치고 소위 책벌레, 독서광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존 칼빈을 비롯하여 조나단 에드워드 스펔전, 로이드 존스 등의 생애를 살펴보면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이들 영적거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영적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갔던 목회자들은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

(1)독서, 영적거장들의 영적성숙 중요 수단으로

신앙적으로 영적 거인을 가장 많이 배출했던 17세기 영국청교도들은 책의 사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건서적, 신학 서적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100여명의 목회자인 저자들에 의한 수많은 신학 서적과 경건서적 설교집들이 간행되어 영국은 책의 나라가 되었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다 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알지만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

20세기 최대의 독서이론가인 모티머 아德勒의 독서에 대한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독서에는 기본적으로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책읽기 1단계-책을 빠른 시간에 훑어보고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개관독서법입니다. 책 읽기 2단계-책을 읽고 나서 완전히 내 것으로 철저히 소화하는 독서 분석법입니다. 책읽기 3단계-같은 주제를 놓고 여러 권의 책을 종합 혹은 비교하면서 읽는 종합 독서법입니다.

독서지침 1: 한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라. 무슨 책을 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느냐 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독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성숙에 꼭 필요한 중요한 책은 완전히 소화되도록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고읽고 또 읽어서 나의 피와 살이 될 때까지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성숙을 위해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읽는다. 속독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신앙에 유익한 책은 그 책을 종이 마르고 닳도록 읽어야 합니다. 완전히 내용을 흡수할 때까지 무슨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읽어야 합니다. 많은 책을 적게 읽는 것보다는 적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권 한 권 소화시킨 책들이 평생 10권만 되어도 거의 다른 책을 보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그 10권의 책은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만일 30권만 평생 이렇게 읽은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훌륭한 성경연구가인 아더 핑크는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자기의 독서법을 피력하는데 "한두 명의 저자에게 보내는 시간을 다른 2-30명의 저자보다 50-60배 더 많이 하라". 또한 역대 목회자 중에 최고의 독서가였던 스펔전은 자신의 독서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읽으라. 몸이 흠뻑 땀 때까지 그 안에서 찾으라. 읽고 또 읽고 되씹어서 소화해 버려라. 여러분의 삶이 되고 피가 되게 하라. 좋은 책은 여러 번 독과하고 주를 달고 분석해놓아라." 실제로 스펔전은 존 번연의 책 천로역정을 무려 10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재건남가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재건남가주장로교회는 36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재건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가능하신 분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 5년 이상 이신 분
-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
- 3년 Term으로 사역 가능하신 분
-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을 가지신 분

제출서류

- 한글, 영문 이력서
-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비전 및 자신의 신앙고백서
-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안수 증명서
- 한국어 및 영어 설교 Tape or CD
- 추천서

제출처

The Revived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1732 S. Verne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수신 : 청빙위원장

기타사항

1. 청빙에 관한 문의사항 email : brianle91@gmail.com
2. 제출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전화문의는 사절합니다.

제 53기 C.W.M.

전도훈련

세미나

교역자, 사모, 평신도 모두를 초청합니다.

전도가 몸에 배어 내 생활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강사:



조복서 사모 이은희 목사

이렇게 살다가 '오락'하시면 다 나와 상관없는, 그것을 붙잡고 지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오십시오!(시 49:17)

일시 : 3월 17(월), 18(화), 19(수) 저녁 7:20 ~ 9:40
장소 :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1041 S. Oxford Ave. L.A., CA 90006)
수강료 : 50불(교재, 전도지, 기타 자료 포함)
연락처 : 562-480-6975, 714-371-6406, 310-749-7522,
boksupcho@gmail.com
주최 : C.W.M.(Christ Witness Mission)
후원 :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분까지

C.W.M.은?

- 1989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전도훈련 기관입니다.
- 각 나라별로 전도지를 제작,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 지역, 교회마다 전도단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C.W.M.에서는 수시로 개교회 전도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앙아프리카 북부의 다주(Daju)



2개 국가에 거주하는 5개 부족의 통합 프로파일... 5개의 다주 부족들은 수단 서부와 차드 동부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다르 푸르 지역에서 많은 부족들을 통치했다. 16세기에 이 왕조는 "툰조르족"(Tunjour)에 의해 전복됐지만 그나마 다행한 것은 왕이 피신해 차드의 다르 실라 지역에 작은 왕국을 세웠다는 것이다.

삶의 모습 다주족 대부분은 농부이며 경제는 주로 곡물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작물에는 조, 수수, 옥수수 등이 있으며, 곡물류, 채소류, 딸기류, 벌꿀, 야생과일과 같은 음식은 숲에서 채집한다.

를 바라며 따라서 아들은 어린이가 동안 응석받이가 된다. 소년이 사춘기에 이르면 그의 "대리인"이 소녀의 부모에게 가서 구혼을 한다. 젊은이들은 경작을 위해 들밭을 일구고 작물을 심으며 가족을 사거나 시장에서 거래하는 등의 많은 책임을 떠맡는다.

적인 권위만을 가진다. 술탄직은 부자간에 상속되며, 술탄 가문은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 다주의 부족들은 확대된 가족집단인 씨족으로 다시 나뉘며, 각 씨족에는 "레투지"(letuge)라는 지도자가 있다. 레투지는 술탄을 보좌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지시를 내리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다.

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금요기도는 모두가 참석하지 않으며, 주류 제한은 자주 무시된다. 게다가 전통적인 애니미즘 신앙 중 많은 것이 그대로 유지돼 이슬람 신앙과 혼합돼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성경은 아직 다주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으며, 영화 "예수"나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여타 기독교 자료도 없다.

신앙

다주족은 15세기 이후로 무슬림이었다. 코란을 숭배하고 거기에 쓰여진 바에 따라 모든 행사와 서약이 이루어진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크리스천의 입양비율 일반인의 2.5배

미국 기독교인의 입양률이 미국인 전체 입양률의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국 기독교 조사기관 바나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성인 44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의 5%가 아이를 입양했다.



기독교인 중 40%는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77%는 '개인적으로 입양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바나그룹은 "이번 조사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입양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부법'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의 델타항공은 26일 성명을 내고 조지아주 공화당이 최근 발의한 종교의 자유 보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과 기업에 보장하는 내용으로, 최근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발의돼 투표를 앞두고 있다. 조지아주 의회는 공화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점하고 있어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애리조나, 교사에 권총 교실 반입 허용 추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앞으로 교사가 교실에서 권총을 지닌 채 수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애리조나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교사 총기 휴대 허용 법안을 제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교사와 교직원들이 총기로 무장한 채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이다.



총기 사용 교육은 해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 교육 내용은 총기 사용법 뿐 아니라 적절한 총기 보관 방법, 상황별 사격 방식, 그리고 경찰관들이 받는 '총기 진숙화 훈련'까지 망라됐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교사가 총으로 무장하면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도 학생과 교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안마, 국경 없는 의사회 의료진 추방

국제의료 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는 28일 미안마 현지에서 활동하는 소속 의료진이 추방당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미안마의 이번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수만명의 환자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미안마 당국의 이번 조치는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이 오랫동안 종교적 박해를 받아온 라카인주의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과 연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미안마 최대 도시 양곤시는 물론 라카인주와 산주, 카친주에 있는 진료소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대부분이 불교도인 미안마는 지난해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교도와 불교도의 종교 분쟁이 발생하자 이 단체가 환자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맥커너히' 수상 소감서 신앙고백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미국인 배우 매튜 맥커너히(45)의 수상 소감이 화제다. 연기상 수상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수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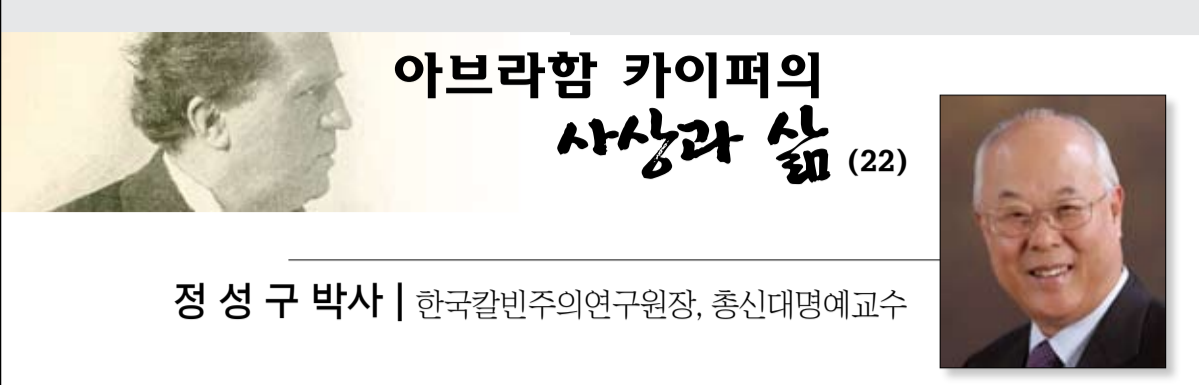


수상자로 호명돼 시상대에 오른 맥커너히는 그 무엇보다 신앙이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CBS와 폭스뉴스, AP 등 미국 주요 언론은 맥커너히의 수상을 전하며 그가 하나님을 언급했다고 비중있게 보도했다.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와 라디오 진행자 리노 루리는 트위터에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참 멋진 일"이라며 그의 신앙심을 높이 평가했다.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는 "백인 배우가 수상 소감 대부분을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놀랄만하다"면서 "지난 10여년 간 아카데미상 수상자 가운데 하나님을 언급한 배우는 덴젤 워싱턴, 제니퍼 허드슨, 포레스트 휘테커 뿐"이라고 전했다.

YWAM DTS / Dominican Republic 2014 COMMUNITY DEVELOPMENT DTS CD DTS. Includes details about the program, objectives, and contact information.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22)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기독교 정치가로서 카이퍼

카이퍼는 위대한 정치가이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기독교 정치가이다. 카이퍼는 기독교 정치가이지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정치가는 아니고, 칼빈주의적 신앙과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들어내려고 했던 칼빈주의적 정치가이다. 카이퍼는 칼빈 이후에 가장 뛰어난 칼빈주의 신학자이다. 그는 대설교가, 목회자, 사회 개혁가, 교회의 개혁가 그리고 저널리스트였지만 그의 생애는 항상 정치적 그 자체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을 받았

다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고 구조적으로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구조적 틀 곧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반혁명당의 당수가 되었고 하원의원, 상원의원 그리고 내무장관, 수상의 자리에 올랐고, 당권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불법과업을 잠재우고 교육법을 고치고 기독교 민주정치의 뿌리를 내리게 했다. 필

자는 이 장에서 정치가로서 카이퍼의 진면모는 무엇이며, 그의 정치철학 곧 칼빈주의적 정치이론을 살피려고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을 논하는 책들의 대부분은 정치가로서의 카이퍼의 삶을 최소한 30% 이상 할애하고 있다. 카이퍼가 주장하는 칼빈주의적 다. 그리고 카이퍼의 정치적 행보는 칼빈주의적 세계관 정립에 토론의 과제가 되었다. 카이퍼가 비록 정당의 당수, 하원의원, 수상, 상원의원으로 살았지만 그의 가슴은 항상 하나님중심의 사상으로 불타고 있었다. 카이퍼는 궁극적으로는 왕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Pro Rege)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각 영역에 중심이 된다는 이른바 영역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사상을 즐기게 주장했다. 이러한 카이퍼의 정치철학의 근저에는 바로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깔려있다. 그래서 카이퍼는 그의 정치철학의 핵심적 저서인 "우리들의 계획"(Ons Program)은 칼빈주의적 신학과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16년에 카이퍼 박사는 "반혁명

적 정치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이란 책을 출판했다. 거기서 카이퍼는 그의 정치에 있어서 신학적 기반을 고백적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 즉 "나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자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를 전공하지도 않았습다. 나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로부터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학위들이 나의 기질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신학적인 배경과 더불어 한명의 실천적 정치가일 뿐입니다 (Ik Blijf Practisch Staatsman Van Theologische). 내가 나의 초기 저작 '우리들의 계획'(Ons Program)에서 밝혔던 것처럼 내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언했던 특정 외의 다른 어떤 특징이 내에 대한 현재적 연구에 말해지는 것을 부적절 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고백 중에 카이퍼는 자신을

있었다. 카이퍼는 성도 개인이 구원 받고 정치문제에 있어서도 비 중생자인 불신자들이 무신론적이고 유물주의적 세계관으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지도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안 된다. 교회는 특별한 영역이므로 죄인이 구속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세상은 또 다른 영역이다. 거기는 빈부의 격차, 교육의 문제,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등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의 분야에서 생겨난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조정하고 법을 고치고, 국민들을 깨우고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치적 문제는 세속적인 데다 우리가 간여할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울타

관을 가진 사람들이나 신비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카이퍼를 이해할 수 없다. 카이퍼의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데 그 하나님은 교회만을 다스리며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포함한 삶의 전 분야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역사(歷史)속에서 역사(役事)하신다. 하나님은 노아와 다윗이 일반은총의 계약을 맺었으며, 심지어 이방인들도 그것에 관한 약간의 지식이 있다고 보았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정부는 항상 축복 또는 저주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며 도구로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통치자의 정치학 교과서가 성경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가는 국민들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은총의 법을 높이 세우고 그 법집행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 이 세상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래 있을수록 이 세상은 교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바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일터이다. 왜냐하면 창조의 세계는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 사이의 시기에 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 카이퍼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Pro Rege)를 설명하면서, 세속적으로 각 사람의 영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말살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세속 정치가들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치 않고 그 자리에 인간을 신격화시켜 버렸다. (16면으로 계속)

칼빈주의적 세계관으로 정립된 정치적 행보 보여 일반은총적 그리스도 왕권수립이 정치철학의 핵심

실천적 정치가로 표현한 점이다. 그러면 그가 말한 것은 무엇에 대한 실천적 정치가란 말인가? 그것은 일반적 의미에서 정치학이나 정치철학이 아니고 왕이신 예수를 위하여(Pro Rege) 즉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실천이란 말이다. 특히 카이퍼의 신학에 돋보이는 일반은총론(De Gemeene Gratie)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왕권의 수립이 그의 정치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카이퍼는 그의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정치 분야 실천에 옮기는 것

리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즉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할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영역의 사람들도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의 말대로 "우리의 소명은 세상 한가운데 있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의 정치철학은 그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일반은총에 근거하고 있다. 이원론적 세계

정치(Calvinistische Politiek)는 바로 칼빈주의적 세계관(Calvinistische Wereldbeschouwing)을 갖고 정치한다는 뜻이다. 카이퍼에게 있어서 정치란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과업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당시 암스테르담중앙교회의 당회장 자리와 위대한 설교자로서의 자리를 비워두고 국회로 진출하게 된다. 카이퍼의 전 생애를 통한 정치적 투쟁과 열매들은 실제로 기독교 정치의 모델이 되었

리스도의 왕권(Pro Rege)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각 영역에 중심이 된다는 이른바 영역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사상을 즐기게 주장했다. 이러한 카이퍼의 정치철학의 근저에는 바로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깔려있다. 그래서 카이퍼는 그의 정치철학의 핵심적 저서인 "우리들의 계획"(Ons Program)은 칼빈주의적 신학과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16년에 카이퍼 박사는 "반혁명

가정사역 칼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사람은 그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고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러나 고독과 단절, 시기와 분쟁의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그 뿌리는 무엇일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출발-하 나님

특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시고 만드신 공동체들이다. 창1:26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 곧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성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면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마3:17),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순종적이고 사랑스런 독생자의 태도로 성부를 기쁘시게 하신다(요8:29). 한편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기록하게 하신다(요16:14).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다른 위격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며, 다른 두 위격으로부터 사랑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런 관계가 인간의 삶 속에서도 재현되기를 갈망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뤘

가정을 만드신 것이다. 에덴동산이 낙원이었던 이유는 동산의 아름다움에 있었다기보다 그곳이 사랑과 신뢰로 뭉쳐진 조화로운 관계의 장소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담을 만드신 후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신부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온 하와에게 아담은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고백을 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와도 단절되지 않는 교통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공동체의 파괴자-사탄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공격과 증오의 대상이었다. 사탄은 에덴동산에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는데 성공하였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에덴동산 이후의 생활(낙원추방)은 비극이었다. 동생을 향한 형의 추악한 질투가 빚어낸 열매는 폭력에 의한 최초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이어진 인류의 역사는 공동체의 파괴, 곧 인간관계의 파괴와 단절로 인한 고독과 분열, 그리고 불필요하고도 비극적인 죽음으로 대체되었다. 창4:16-24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계보를 발견하게 된다. 이 혈통의 족보는 그들이 개인적 의미(명성)를 얻으려고 인간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냉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에녹은 성을 쌓았고, 아발은 가축을 치는 자였으며,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종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이 구절

들에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공동체 또는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에 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랄프 네이 버는 '교회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는 책에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사탄의 계략은 분명했다. 위의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이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성취감으로부터 자신들의 의미(명성)를 찾았다.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결함이 자신의 이 미지에 파괴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창4:25-5:24에서 동일한 아담을 조상으로 하여 공동체적 삶을 영위했던 또 하나의 혈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언급이 나오는 26절은 위에서 언급한 세대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공동체의 회복-하나님 중심의 관계회복

이 새로운 사람들에 관한 설명에서는 개인적 성취에 관한 언급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단지 이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community) 속에서 살기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앞서 나왔던 혈통의 성취에 대한 기록과는 대조적으로 각 사람의 수명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개인적 의미(명성)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였으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창5:24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얼마나 커다란 차이점인가? 에녹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무엇이 아니라 천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였다. 이 두 혈통에 관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의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인간보다 오래 남게 되는 '성취'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78. 창조론의 기초(28) 공룡과 용의 전설

약 4350년 전, 노아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공룡들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번성하게 되었다. 그 수가 많아지면서 공룡들은 유럽,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였다. 이때의 기후는 홍수전보다는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북극에서도 사람들과 매머드들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과학자들은 이때를 습윤사막(wet desert)시대라 부르며 한때와 열대의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던 그 생물 집단의 모습을 부

뽕뽕뽕뽕한 피부, 긴 목과 꼬리, 큰 이빨, 그리고 몸통에서 아래로 곧바로 뻗어 내린 다리 등이다. 이 공룡의 다리는 현존하는 다른 파충류들의 다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지금 살아 있는 파충류들 중에서 길어다니는 것들은 모두 다 몸통의 옆에서 다리가 나온다. 그러나 공룡 화석을 보면 개의 다리처럼 몸통에서 나오는데 수많은 고대의 그림들 혹은 조각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용들에 대한 수많은 표현물들

는 여러 조각 장식들 중에 한 동물인 스테고소러스에 틀림없다. 거기에 함께 조각되어 있는 다른 동물들은 지금도 살아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조각한 1200년 경의 사람(들)은 이 공룡을 포함한 다른 모든 동물들을 직접 보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미국 유타 주의 아나사지 인디언들이 150BC에서 AD1200경에 암석에 그린 암각화에는 대형 초식공룡이 그려져 있다.

이슈타르의 문 BC575년경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2세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Ishtar)에게 바쳐진 이슈타르의 문이 건설되었다. 그 문은 도심으로 들어가는 8번째 문이었다. 그 문의 특징은 들소와 용들의 형상이 번갈아가면서 그려져 있다. 그런데 그 용들의 형상은 악어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런데 그 용들의 자세한 정도나 들소의 자세한 정도가 비슷한 것을 보면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이 용들을 직접 보았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십이지의 동물들
흔히 12가지의 띠로 알려진 동물들(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용”이란 단어 각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dragon)은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면, 북극의 이누이(Innuit)족은 대형 파충류를, 아메리카 원주민인 수(Dakota Sioux)족은 무서운 물속 괴물을 “용”이라 불렀다. 홍수 후, 특별히 바벨탑 사건으로 생겨난 각 언어권에서 어떤 경우에는 수룡을, 다른 경우에는 공룡을, 또 다른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익룡을 용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또, 공룡이란 단어는 1841년에 만들어졌으므로 이 전의 문헌에서는 공룡이란 단어가 없다. 따라서 공룡의 흔적을 찾으려면 공룡이란 단어가 아니라 묘사를 살펴야 한다.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들은 6500만년전에 모두 멸종되었다. 이 역사가 사실이라면 공룡들은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기 6400만년전에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 기간은 100년이 64,000년 지나는 영원처럼 긴 기간이므로 사람은 공룡을 볼 수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된 증거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공룡에 대한 증거들은 진화 역사가 사실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룡의 나이가 수억 년이 아님이

2012년 싱가포르 학회서 2억-6500만년 공룡 존재 거짓 밝혀

공룡은 인류수명 급감 바벨탑사건결과 빙하시대 후 종류별로 멸종

조화스러운 연합제(disharmonious association)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은 생물들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연합제로 존재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이유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시기에 공룡을 비롯한 동물들이 번성하다가 빙하시대 이후 더욱 나빠진 환경에 공룡과 다른 여러 동물들이 멸종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바벨탑 사건이 나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계 여러 곳으로 강제로 흩으셨다. 그 중 어떤 가족들은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주했는데 거기에 이미 와 살고 있던 공룡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공룡을 만났던 기억들은 글이나 그림 혹은 전설이 되어 온 세상에 남게 된 것이다.

고대 역사가들은 용(dragon)을 실제로 살아 있는 동물로 묘사했다. 용들도 다른 일반적인 동물들처럼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공룡의 묘사는 조각, 조소물, 그림, 모자이크, 태피스트리(tapestries), 그림문자, 암각화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견된다. 그것들이 보여주는 공룡의 특징들은 뱀,



성경 역사를 증언하는 용
공룡 뼈의 연대측정 결과와 성경과 많은 기록과 전설들은 성경의 역사가 사실임을 보여준다.

과 그 묘사들이 전 세계의 지리적인 공간과 역사적인 시간을 통해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공룡 화석을 볼 수도 없는 수많은 문화권에서도 용에 대한 전설들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공룡을 진짜로 만났다는 설명 외에 달리 설명을 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캄보디아 사원의 스테고소러스 조각
캄보디아의 앙코르 지역에 있는 타 프롬(Ta Prohm)이란 사원 벽에는 등에 나뭇잎이 붙은 것처럼 보이는 공룡인 스테고소러스(stegosaurus)의 암석 조각이 있다. 이 사원의 벽에 장식되어 있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중에 용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다. 이 체계는 한국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과 타이에서도 사용된다. 한국 역사에서 이 그림들은 신라의 김유신(595-673AD)의 묘에서 최초로 나타났고, 중국의 경우에도 당나라(618-907AD) 때부터 묘지에 이 동물들의 그림이 조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0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이 12지에 11가지의 진짜 동물들을 연결시켰는데 왜 용만 진짜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십이지를 고안한 동아시아인들은 용을 포함해서 이 모든 동물들을 모두 다 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이성적이다. 용은 넓은 의미에서 공룡에 포함되는 동물이다.

2012년 8월 13-1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학회(AGU-AOGS)에서 10개의 공룡 뼈들을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결과 공룡이 2억-6500만년 동안 존재했다는 진화론 역사가 거짓임이 확인되었다(YouTube: Carbon-14 dated dinosaur bones-under 40,000 years old). 이제 더 이상 공룡을 통해 수십억 년의 지구나 이와 진화론을 지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공룡 화석을 비롯해서 공룡 그림이나 조각 전설 등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Creation)와 타락(Corruption), 홍수 심판(Catastrophe), 바벨탑 사건(Confusion)으로 인한 빙하시대의 역사와 아주 잘 어울린다. 이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수명과도 잘 어울린다. 공룡들은 인류의 수명이 급감하게 된 바벨탑 사건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 빙하시대 이후 종류별로 점점 멸종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용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공룡을 보았던 것이다. 성경의 역사는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다.
이메일: mailforwsoch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뉴저지복음증장교회)

겨주는 내게 돌리라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너의 겨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좃고 가서 가져오라”(잠27:13).

리브가는 분명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듯이 야곱대신 에서를 축복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 중히 여겼다면 이루어주실 이도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도 있었습디다. 아니면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에 너무도 다급해져 악한 꾀를 꾸며대기에 급급합니다.

늘 집안에서 머리 맞대고 가까이 붙어 지내던 엄마 리브가에게서 익힌 야곱이 이미 얽은피로 팔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사서 스스로 챙깁니다. 제 힘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살살 머리 굴러 욕심을 채워가는 리브가와 야곱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어미가 더 대답하게 에서의 옷을 입고 가장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종용합니다. 비록 술수에 익숙하지만 야곱이 주지하니 “겨주는 내게 돌리라”고, 도무지 스스로 깨달을 수없는 말로 부추겨 어미와 아들의 합작으로 일단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받기에 성공을 합니다마는 거짓말은 들통이 나게 마련이지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축복을 받아냈으니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지 못하니 방성대곡하고 야곱을 죽이겠다 난리쳐대니 만천하에 집안의 부끄러운 모습을 크게 드러낸 꼴이 됐습디다. 하나님 약속을 중시 않고 큰 아들 에서를 편애한 이삭의 불찰을 드러내 온 집안의 대표인 아버지의 권위가 공개적으로 실추됐습디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먼 남편과 더 낱보다 못한 사이가 되였겠지요. 자기가 오매불망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앞 뒤 생각 없이 사고 쳤지만 아버지도 야곱을 곁에 안보고, 형은 죽인다 난리치는 통에 자신의 의로 야곱을 집에서 내쫓은 셈이 됩디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을 뽑아내시는데 자신보다 더 심한 같은 마음의 사람을 옆에 바짝 붙이셔서 죽을 맛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닮지 않은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십니다. 거짓말 잔머리 굴리는 것이 집안 내력어던지, 20년간 삼촌 라반 밑에 들어가 라반에게 속고 또 속는 바람에 호되게 고생을 하게해 리브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못할 짓을 한 셈이 됩디다.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기로 미워하며 비통하게 하여 엄마가 됩디다. 그런 큰 아들과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방 며느리들과 함께 죽을 때까지 씩씩한 인생을 살았습디다.

어디를 찾아봐도, 심지어 야곱이 리브가의 유모를 장사했다는 구절은 있으나(35:8)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애도하여 안타까이 장사했다는 한마디도 없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가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는 기록뿐입니다(49:31). 가족은 있으나 도무지 얼골 돌릴만 한 곳이 없이 가시방석에서 “겨주는 내게 돌리라”는 말대로 모든 가족관계를 산산조각을 내고 사랑하는 야곱은 보고도 그리워만하다가 외톨이로 여생을 마친 여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최상인 듯 착각해 나름대로 떠오르는 해결책을 즉각 실천에 옮기는 순발력이 종종 여러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대형사고임을 가슴에 새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5,6).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23년간 함께 울고 웃은 손인식 목사님과 베델 한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이런 교회가 잘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KCC(Korean Church Coalition) 대표간사
- 해외 3천인 목사단(UTD) 공동대표
- 이민목회연구원장
- 이민목회 멘토링 세미나 주강사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미래목회 세미나 강사
- 저서 《얼바인에서 들려오는 동방복음》

손인식 목사(Peter I. Sohn)는 강원도 철원에서 1948년 12월 30일 황해도 곡산에서 월남한 손원국 장로, 김화비 권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광고등학교, 고려대 재학 중 군 입대하여 제대 후 복학하지 않고 Washington D.C.로 이민(1973)가서 Washington Bible College (BA), Capital Bible Seminary (M.Div.)에서 수학했다.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1990년 12월-2013년)로서 복음의 능력을 통한 동량변화와 가정회복, 평신도 사역 개발과 리더십 훈련,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의 역할, 북한 동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교회 역할, 교회 부흥과 선교 부흥의 모델교회, 2세 목회의 여호수아 connection, 영성사역을 통한 한인교회 개혁운동 확산 등에 목회 역정을 두고 있다. 손승욱 사모와의 사이에 아들 세진, 며느리 주혜, 손자 하람, 하준 딸 수진과 사위 최훈, 손자 가람이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동량'은 돌아온 탕자를 줄인 말이다. 떠난 탕자와 떠 돌아온 탕자들이 동량이 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에 관심을 쏟는 저자는 베델한인교회를 섬기며 나는 은혜를 책으로 펼쳐놓았다. 동량들이 주님의 참된 아들인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민목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베델한인교회의 자취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이 책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온 아들의 회복이 잔잔하게 흐른다.



리처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운동의 정체성 이해 (9)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포스터와 레노바레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신학논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답은 너무도 분명하다. 포스터는 신비주의자이며 가톨릭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2007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은 신비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인용하는 자들이 16세기 이전의 인물들이 모두 가톨릭이라고 한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는 신비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신비주의적 사상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의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의 글과 생각을 여과도 없이 소개하면서도 그들이 신비주의자이거나 그들의 사상이 신비주의적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그 대신 포스터는 비록 그들이 제도화된 교회로부터 소외되고 거부당했지만, 신비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생명을 유지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가 레노바레의 '영적 형성'을 통해 세계 교회를 개혁한다는 비전을 품게 된 것도, 신

즈음 책은 유진 피터슨, 달라스 윌라드, 그리고 리처드 포스터의 것을, 이전의 책은 토마스 머튼의 책을 권장한다고 하면서 머튼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허버트 더글라스(Herbert E. Douglass)도 토마스 머튼의 사상에 찬성하는 포스터의 기도 방법은 동방 신비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뉴에이지와 동방 신비주의, 보편구속설, 범신론으로 혼합된 관상기도로, 축적된 관상기도가 기독교에 잠식되어간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좋은 예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자.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포퓰리즘 뒤에 숨겨져 있는 포스터와 레노바레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계속된 신학 논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도리어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비성경적이며 반종교개혁적인 보이지 않는 큰 힘을 대항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요즈음 영성(spirituality)이 대세이다. 영성이란 기독교의 독특한 성향이 아니다. 가톨릭, 이슬람, 불교도 영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성은 타 종교

노르웨이의 한스 닐센 하우게와 국내 선교를 두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교회를 세우는 모임이 결코 아니었다. 도리어 반교회적인 정서를 지닌 자들의 독특한 공동체로서의 모임이었다. 더욱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는 초대교회의 몬타누스주의자들 이후로 산발적으로 존재하였던 분파주의자들의 전통을 가리킨다. 그 예로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나 포스터가 속한 웨이커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포스터는 이러한 분리적인 교회론을 통하여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곁에 사랑으로 다가가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야 할지 깨닫도록 도와줄, 훈련된 영적 지도자들로 구성된 거대한 영적 군대의 출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인된'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라 '훈련된' 영적 지도자라고 한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그의 포퓰리즘으로 레노바레를 쉽게 받아들인 한국교회가 앞으로 그의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의 제안도 여과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 목회자들이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교리와 질서보다

'대형주의 실용주의로 인한 영적침체서 탈출·내적 충실한 성도양육'은 경청해야 그러나 포스터 제시방법으로 교회 갱신 회복될 수 없고 되레 혼란과 분열만 야기

학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분명히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웨이커인 포스터는 가톨릭 머튼과 나우웬과 사상적 교류를 나누었다. 포스터와 나우웬이 토마스 머튼의 사상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머튼과 나우웬의 신비주의적 가톨릭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관상기도와 기독교 영성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일반화된 사실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피터 트라벤 하스(Peter Traben Haas)는 지난 25년간 기독교 공동체 안에 관상적 방법이 잘 알려지게 된 것은 "토마스 머튼, 리처드 포스터, 달라스 윌라드, 유진 피터슨, 도로티 버틀러 베스, 브라이언 맥라렌, 리차드 로어, 버나데트 로버츠, 로빈 아미스, 그리고 특별히 토마스 키팅의 사역과 글을 통해서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스캇 맥나이트(Scott McNight)는 요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 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 어떤 책을 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토마스 머튼과 리처드 포스터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 같은 현대 작가의 글을 찾는다. 그러면 그들은 오랜 기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고전적인 영적 거장들을 소개한다." 이들과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필립 안시(Phillip Yancey)도 영적 훈련에 관하여 "요

가 기독교의 담을 쉽게 넘는 도구가 되었다. 실상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소위 영성의 대가들이 그 증거가 된다. 토마스 머튼, 헨리 나우웬, 리처드 포스터, 유진 피터슨, 필립 안시 등은 모두 같은 사상을 지닌 자들이다. 그들의 프로필과 글에 나타난 접근방법은 서로 달라 보여도, 그들은 신비주의적 가톨릭 영성을 기독교에 심어놓기 위하여 힘을 합쳐 한국교회를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포스터가 2009년 크리스챤리티투데이에 기고한 '영성 형성을 위한 우선 과제: 리처드 포스터가 말하는 앞으로 30년'에 한국교회가 그를 반드시 경계해야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지난 30년간 자신의 사역을 돌이켜 본 후, 앞으로 추구할 방향을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는 앞으로 개인의 내적 성장의 사역을 넘어서 앞으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깊이 전념하는 것이지 분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분리가 아니다. 분열도 아니다. 또한 새로운 교단의 설립도 아니다. 우리는 정해진 교회구조 안에 머물며, 그 구조 안에서 작은 빛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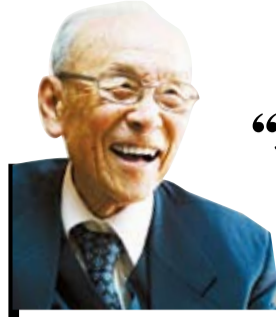
그는 계속하여 그 예로 독일 경건주의의 '경건한 자들의 모임', 영국 웨슬리의 모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곧 신앙의 척도라고 주장하며 영적 잣대를 임의대로 사용하는 자들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를 환영하겠는가?

포스터와 레노바레가 한국교회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형주의와 실용주의로 인한 영적 침체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이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적으로 충실한 성도들로 양육하라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공감하고 있는바, 겸손한 자세로 경청해야 할 말이다. 그러나 포스터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한국교회는 갱신되거나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도리어 더 큰 혼란과 분열에 빠질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작은 연못 한국교회는 더 이상 '큰 돌'에 의한 파동으로 혼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남겨준 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성화가 성도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성경이 지시하는 영적 성숙과 교회 갱신의 원칙을 머리와 가슴으로 동시에 이해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약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달려야 한다.

(끝)



방지일 칼럼 (30) "본대로 들은 대로"

화끈하게

우리네와 같이 온돌에 사는 풍습엔 방이 화끈하게 더운 것을 좋아한다. 추울 때는 화끈한 것처럼 좋은 것도 없다. 난방에 있어서도 아파트엔 거의 공동난방이 위주였는데 요즘은 각 방마다 제각기 난방을 하게 한다고 한다. 화끈하게 열을 올릴 사람들은 기름이나 가스나 더 들어도 마음대로 온도를 올리고 살게 함이다.

나는 어느 목사님께 들었다. 집회강사를 좀 화끈한 사람을 청하자 하더라는 담임목사 대답이 내 자신이 화끈 못한다 했다는 말을 들었다.

침체되어있을 때 나팔을 크게 부는 식 소위 부흥회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소위 부흥꾼들은 그 목적대로 다하여 드리겠다는 주문까지 받는데 헌금을 위함인가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는 말도 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무슨 청부업인양 착각인 듯도 하다.

좀 뜨거워지기를 바란다. 그 원하는 이는 자신은 빼고 다른 교인들이 뜨거워지기를 바란다. 모이기도 잘한다. 헌금도 잘 낸다. 이런 물질적 부흥을 바란다. 이웃 교회보다 앞서려는 한 경쟁심도 거기 내포한다. 좀 뜨거운 강사를 청하자고 담임목사에게 주문한다. 자신이 뜨거워지려면 자신이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주일을 성수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일은 못하면서 뜨거운 것을 원한다. 목회자는 벌써 그 말하는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저는 모르게 그럴 것이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마음을 언제나 보고 있다. 기도하는 까닭에 주 앞에서 나타나게 된다.

나는 요즘 종종 나 자신부터 '이런 글을 쓰면서 자신은 망각하고 서는 안되는데' 깊이 자책을 하면서 쓴다. 내가 말하는 이 사실이 내게도 해당되고 있음이다. 나를 지적하여 경고의 말로 듣는 것이다. 남의 말만하지는 아니한다.

모름지기 자신이 뜨거워야 된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엡4:12) 직원의 임무의 한 부분이다. 먼저 믿는 이는 후에 믿는 이들을 온전케 해야 한다. 내가 온전해져야 다른 이를 온전케 할 수 있다. 장로, 권사, 집사들이 성수주일도 못하면서 다른 교인들이 뜨거워 주일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이는 안되는 말이다. 자신이 뜨겁게 주를 사랑할 때 죄는 미워하게 된다. 죄를 혐미경으로 찾게 됨이라 자신이 미워진다. 이런 뜨거움이 자신에게 있을 때 한몫된 교회의 다른 지체도 뜨거워진다. 숯불의 왕성함은 모여질 때 더하다. 한 숯씩 같이 놓으면 자연히 스러지고 만다. 내가 뜨거워야 내 형제가 뜨거워진다. 여러 숯덩이를 같이 할 때 열은 더 내게 뱉을 본다. 교회는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은 찬 숯덩이로 있으면서 남만 불기를 바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다. 내 자신이 뜨거워지기를 바래서 화끈한 강사를 청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그 숯덩이 불에 당기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이다.

"화론다" 만군의 여호와를 만난 이사야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나는 입술이 더럽고 또 입술이 더러운 자 가운데 사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을 것이라고 단언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그때에 한 스랍이 단에서 핀 숯불로 그의 입술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사6:7) 이런 화끈이여야 할 것이다. 일시적 정서의 화끈은 그 잠깐뿐이다. 진정한 화끈은 외면하고 요즘 유행하는 정서의 화끈만을 위하여 한 정서의 흥분만 위주로 하니 신앙의 알참이 없이 되고 만다.

흥행하는 영화나 극장에 가서 흥분되는 것을 원한다면 그 잘못됨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런 화끈함을 요청하지 않게 목자는 양들의 만족을 말씀으로 채워주어 말씀에 의한 화끈을 맛보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목회란 내 전 신경을 동원해서 양들의 구미를 보아서 먹이며 길러야 할 것이다. 어떤 요청을 받아서 분석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요청을 시정하며 채워주어야 하겠다.

(1999년, 2권)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년 5월 본교 강의안내

May 12-16(5월 12 -16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om Stallter

May 19-23(5월 19-23일)

DI 8280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PM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식 리허설(Graduation Rehearsal)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졸업식 장소
(졸업예정자는 전원 참석해야 하며 정장차림을 해야 함)

총장주관 졸업만찬(President's Luncheon)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12:00-1:30pm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ster Hall)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2차 임실행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 제40회기 제 2차 임실행위위원회 모임이 3월 10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다뤄질 의제는 △부활절새벽연합예배(4/20) 및 3차 준비기도회(3/17, 3/31, 4/14) △북미주원주민 선교회 요청 등이다.

▲문의: (718)358-0074

중앙아시아 선교후원음악회

중앙아시아 선교후원음악회가 오는 8일(토) 오후 7시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에서 열린다. 필그림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회가 후원한다. 이날 공연은 클래식 음악을 위주로 하는 Music from Above 음악선교팀이 맞는다.

▲문의: (201)843-2222

유은성 김정화 부부 찬양간증집회

찬양사역자 유은성 김정화 부부의 찬양간증집회가 3월 30일(주) 오후 5시 갈보리렐플함인교회(담임 백형두 목사)에서 열린다. 동 교회의 설립 2주년 기념 새가족 초청으로 열리는 이 찬양간증집회는 "CCM계의 가장 사랑받는 싱어송 라이터"라는 수식어가 붙은 유은성과 탈렌트 김정화 부부는 기아대책과 밀알복지재단의 홍보대사로서 사역하고 있다.

▲문의: (862)249-0983, (973)694-2938

찬양학교 개강

찬양학교가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매주 오후 4시 뉴저지생명사랑교회(담임 서영정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 유현웅 찬양사역자, 김종윤 목사, 세라정 찬양사역자, 서영정 목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료.

▲문의: (609)613-6007

뉴욕전도대학교 불학기 개강예배

뉴욕전도대학교(학장 최예식 목사) 불학기가 3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개강예배를 드리고 시작된다.

▲문의: (516)528-9119 박차숙 전도사

“빛과사랑” 성경암송대회

미주 기독교 다이제스트 “빛과사랑”(발행인 권태진 목사)이 창간 26주년 기념 제 11회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4월 26일(토)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리는 성경암송대회는 오전 10시 필기, 오후 2시 구술대회가 있다. 개인부(한영 공동) 시험방법은 한영 중 자유선택이며 필기시험은 “바이블과워100”(본지 게재)에서 30문제가 출제되며 필기시험 우수자를 선정 20문제를 구술로 답한다. 상금은 1등 2천달러, 2등 1500달러, 3등 1천달러. 단체부(한영공동)는 필기시험 4인1조로 각각 25문제씩 자유선택하며 4인중 대표 1인이 20문제를 구술로 답한다. 상금은 1등 1천달러, 2등 8백달러, 3등 6백달러. 신청마감은 3월 31일까지 성경(한영), 주소, 소속교회(직분)를 기입해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팩스:(516-883-1964 이메일 : lightloveny@yahoo.com



이노비가 KCS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콘서트를 갖고 있다

뉴욕교협, 주일예배 3.1절 기념예배로 요청

삼일절 정신 계승 통일 염원 기도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은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욕협의회의(이하 뉴욕평통)가 요청한 3월 2일 주일예배를 3.1절 기념주일예배로 지키면서 통일염원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내용을 뉴욕지역 교회들에 협조공문을 통해 전달하며 3.1절의 중요성을 알렸다. 뉴욕평통은 교회들을 향한 당부

와 관련, “올해 삼일절을 맞아 통일 염원의 날과 통일 학교의 강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뉴욕일원 50여만 동포들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이에 주일예배를 ‘조국 대한민국 통일 염원’이라는 주제로 드리고 삼일절 정신을 계승하고 통일을 위한 염원을 확인하는 계기를 뉴욕평통은 이와 함께 뉴

욕, 뉴저지, 코네티컷 한인회와 각 단체에서 개최하는 3.1절 기념행사 때에도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열기가 뉴욕에서 크게 일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뉴욕교협 회장 김승희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초대교회는 2일 주일대예배를 3.1절 기념주일예배로 드렸다.

김승희 목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여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볼 수 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이 1910년 대한제국에서 조선

으로 개명되며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었는가” 그러나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위해 1214번이라는 만세 운동이 펼쳐지며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노력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기억할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자 먼저 전했다.

김승희 목사는 “3.1 운동에 앞장선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인들이 1%로도 안되는 당시 김선주 목사님을 비롯해 나라를 살리고자 나섰던 그들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본받은 인물이 됐고 본받는 기독교가 됐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인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염원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며 “통일을 간곡히 염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예일장로교회에서 열린 뉴욕원로목사회 초청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예일장로교회, 뉴욕원로목사회 초청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 초청예배가 지난 27일 오전 11시 뉴욕예일장로교회에서(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열렸다.

회원 50여명의 원로목사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예배에서 김종훈 목사는 시편 34편 1-11절을 본문으로 “어호와 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그의 선하심에 의해 인도해주시고 목회 중 놀라운 은혜로 기도 응답해 주셨다”며 두 가지 사건을 들

어서 간증해 원로목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설교 후 회원들은 △뉴욕예일교회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예배 후 오찬은 동 교회 여성교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삼계탕으로 대접했으며 모든 참석자들에게 선물도 제공됐다.

뉴욕원로목사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 제12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장소는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

(정리: 유원정 기자)



새벽별장로교회 첫날 부흥사경회를 마치고 강사와 함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춘계 부흥사경회

강사 장영춘 목사 “데오빌로여 오순절을...” 주제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가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를 강사로 춘계 부흥사경회를 열었다. 장 목사는 “데오빌로여 오순절을 통과하라”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 부흥의 비결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첫날 예배는 정기태 목사의 인도로 정기식 집사가 대표 기도했으며 정은주 집사(선의교회)가 특송에 이어 장영춘 목사가 설교했다. 장 목사는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본문으로 자신이 퀸즈장로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 충만”, “기도충만”, “성령 충만(사랑 충만)”을 강조했다.

장 목사는 “말씀 충만”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데오빌로여 하나님의 사랑을 자라는 의미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받는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며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또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교회는 부흥한다. 목회자는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투자해야 한다. 성도들도 목사와 같은 기도, 같은 말씀에 순종하면 부흥한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교회 부흥의 비결 둘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목사를 소중히 여긴다. 셋째로 말씀 사역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또 목사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며 성령은 말씀+기도로 온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말씀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둘째 날 새벽기도회는 문경환 목사(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감)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마 22:32-3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 8쿠마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1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2 교회(기관) 주소	_____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5 사택주소	_____
6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
8 Web Add.	http://
9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4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남가주한인목사회가 주최한 3.1절 기념예배가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목사회 주관 3.1절 기념예배 예배 후 '평화의 소녀상' 방문 참배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정중윤 목사)는 3·1절을 맞아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삼일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부회장 이운영 목사의 대표기도로 시작한 예배는 이사장 이재권 장로가 성경봉독을 하고 직전회장 이운영 목사가 사도행전 1장 6-7절 말씀을 들고 '3·1운동에 끼친 기독교 정신'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운영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우리 선조들의 3.1 독립운동 정신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다"며,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만세운동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당시 기독교인 수는 약 20만명으로, 전체 인구 천6백만 명의 1.5% 정도에 불과했지만 민족에 미친 기독교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정신이 3.1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다"고 말했다. 중경회장 김사무엘 목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남가주원로목사회 부회장 이태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예배 후에 목사회 임원진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해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당시 기독교인 수는 약 20만명으로, 전체 인구 천6백만 명의 1.5% 정도에 불과했지만 민족에 미친 기독교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정신이 3.1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다"고 말했다. 중경회장 김사무엘 목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남가주원로목사회 부회장 이태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예배 후에 목사회 임원진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해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노스힐스한인교회 첫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본교회 담임인 원성재 목사와 찬양팀이 회중들과 찬양하는 모습

노스힐스한인교회 첫 예배 성황 "최선 다해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

노스힐스한인교회(담임 원성재 목사) 첫 예배가 2일 오후 4시 본 교회 교인들과 축하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원성재 목사는 "노스힐스한인교회가 브레아 지역에 세워져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 신실한 교인,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 됐으면 한다. 아울러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원성재 목사의 사회와 아름다운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아름다운교회 성가대

의 찬양,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가 '여호와를 기뻐하라'(시 37:1-7)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동형 목사(벤나이스복음연합교회 목사)의 축사,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퍼시픽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덕 그린 목사(노스힐스교회 담임)가 축사했으며, 남용순 목사(리버사이드침례교회 원로)가 축도했다. 노스힐스한인교회는 매주 낮 12시30분에 주일예배와 주일학교가 열리며, 목요일 저녁 7시30분 목요기도회를, 그리고 주일 저녁 목장모임을 갖는다. 교회주소는 3100 E. Birch St, Brea, CA, 전화는 (909)938-2711, 3205. (박준호 기자)

제17회 에피포도예술상 시상식 성료

현대식, 오영옥, 박은화... 첫 성악부분에 최영은

에피포도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 목사)가 에피포도 설립 18주년을 기념하는 제17회 에피포도 예술상 시상식을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 만리장성 식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백승철 목사는 "에피포도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성악부분을 시상했다. 또한 신인상을 수상한 현대식 시인의 작품에 곡을 붙여 발표해 뜻 깊었으며 감동을 받았다. 크리스천 예술인들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진심했으면 한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작품을 하는 자가 아닌 죽은 후에도 계속 감동을 줄 수 있는 작가와 예술가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인미 시인의 사회로 1부 예배와 2부 시상식, 3부 수상자가 작품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이경자 작가의 기도 후 "창조와 변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추덕영 목사(그리스교회)는 "예술을 창작하는 일이 때론 외로운 길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이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2부 시상식에는 조은혜, 감사라, 이경애의 찬양운동에 이어 문학상 시 부문 신인상의 현대식, 오

영옥, 박은화 시인의 수상식과 음악 부문에는 최영은 성악가가 제7회 작곡부문 대상수상자인 강위덕 작곡가의 '흰 머리갈대(현대식)'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학상 부상은 문태성 시인이 수상했다. 문태성 시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지난 2013년 10월 17일 한국 행사에서 수상했다. 에피포도는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리워한다'라는 빌립보서 1장8절의 바울의 심장을 의미하는데 199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쪽지에 시와 글로 복음을 담아 마켓 등에 갖다 놓으면서 시작했다. 현재도 쪽지글은 미국 각지 소외된 곳, 감옥과 선교지에 우송되고 있다. 문학뿐 아니라 성악, 작곡,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수상자들을 낸 에피포도예술인협회는 한국지회를 비롯해 뉴잉글랜드 지회, 뉴욕지회, 미중남부 지회, 음악분과위원회, 미술분과위원회 등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에피포도예술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기독교적인 삶을 풍요롭게 사색, 영유하게 하는데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커플 관계진단 및 상담 워크샵

가정사역단체 '가정을세우는사람들'(금병달·공명진 공동대표)과 써니송 교수는 커플 상담관련 워크샵을 열고 건강한 한인가정 만들기 에 나선다. 이번에 커플 관계검사와 자격증 워크샵을 통해 혼전상담을 위한 가이드가 제공되며, 부부들을 위한 상담 및 지도할 수 있도록 돕고, 수료자들은 지역별, 상담자로 등록이 되어 커플관계 상담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커플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연결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3월 15일(토) 오전9시반-오후4시반 은혜한인교회 미션센터 230호에서 진행된다(1645 W. Valencia Dr., Fullerton). 강사로서는 금병달(가정을세우는사람들 대표, 커넬대학교 상담대학원 원장) 및 공명진 교수이며 등록비는 195달러(DVD 및 교재, 간식, 커플관계상담 자격증). 부부가 함께 참여할 경우와 재수강자는 50달러를 추가로 내면된다. www.family_kum@gmail.com ▲문의: (714)287-2458

부활절 교사세미나 & 28기 찬양운동학교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연 목사)에서는 2014 부활절 교사 세미나와 28기 찬양운동학교를 3월 1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계대교회(담임 이상남 목사)에서 실시한다. 등록비는 50달러(강의안, 점심). ▲문의: (213)382-1544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조성근 목사.

베이커스필드한인장로교회 춘계심령대부흥회 "다시 일어나라" ...강사 조성근 목사

베이커스필드한인장로교회(담임 한재신 목사)가 교회 부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자 춘계 심령대부흥회를 개최했다. 조성근 목사(미주갈렘산기도원, 안양갈렘산기도원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금번 부흥회는 "다시 일어나라!"(행3:6)는 주제아래 은혜가운데 진행됐다. 단에 오른 조성근 목사는 이민의 삶 가운데 겪어야 하는 아픔과 믿음을 더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시간마다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 주었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본 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웃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은혜를 더했으며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회개, 결단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사인 조성근 목사는 부흥집회 후 LA소재 미주갈렘산 기도원에서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설립 2주년 기념 말씀대부흥회를 인도했다. 갈렘산기도원에 관한 문은 (213)382-1450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LA사랑의교회에서 열린 2014 신약성경 말씀사경회에서 강사로 나선 이애실 사모가 강하고 있다

LA사랑의교회 2014신약성경 말씀사경회

'어 성경이 읽어지네' 저자 이애실 사모 강사로

LA 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2014 신약성경 말씀사경회를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사경회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 저자인 이애실 사모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됐다. 저녁 7시30분에 시작된 첫날 사경회에서 이애실 사모는 구약성경의 흐름을 설명했으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애실 사모는 또한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의 세월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말라기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4백년간의 공백은 세계사로 봐야 한

다. 그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였다.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왕국이 로마 제국에 멸망이 되는 등 대제국들의 싸움과 멸망의 시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벨론에서 자귀환을 이끈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거룩한 예배공동체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에스라공동체가 모여 예배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이는 유대교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애실 사모는 마지막 날까지 신약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www.thanksgivingchurch.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lafgusa@yahoo.com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Tel. (323)466-7101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Tel. (562)691-0691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민 Tel. (213)481-2779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www.scrdm.org	남가주사망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Tel. (714)772-7777	대홍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Tel. (310)719-2244	동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Tel. (323)466-6625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은은 Tel. (323)466-1234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Tel. (626)793-0880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Tel. (213)380-9377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www.mjpa.org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Tel. (310)749-0577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Tel. (949)854-401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Tel. (562)694-621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www.samsungchurch.org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www.newpraisechurch.org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Tel. (818)952-2449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Tel. (213)745-9191	아카데미 은누리 소망교회 담임목사: 조효숙 Tel. (626)533-115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Tel. (818)249-2871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성호 Tel. (213)245-4090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Tel. (213)384-7274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www.gracemc.org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Tel. (213)749-4500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www.cornerstone.org	토티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www.totistone.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004					



목회서신

‘별 메달’ (meteorite medal)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회의교회)

러시아 소치(Sochi)에는 전 세계의 겨울 축제인 동계 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88개국에서 2천9백 명의 선수들이 참여했고 총 294개의 메달이 제작되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러시아 유성 추락 1주년을 맞아 유성 파편을 넣어 특수 제작한 금메달, 즉 유성 메달(meteorite medal)인 ‘별 메달’(별에서 온 메달)을 2월 15일에 열린 7개 종목 우승자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러시아로 귀환한

쇼트트랙(short track)의 황제 안현수(빅토르 안)선수도 그 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별 메달’은 전 세계에 단 7개밖에 없기에 그 가치와 값은 일반 금메달보다 몇십배는 될 것이라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한국 선수들과 국민들에게는 ‘오직 금메달’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여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따고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 좌절하다’며 우리는 17살 여고생 심석희 선수를 본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나 무라지 않고, ‘울지마 심석희, 너는 세계 2위야... 별 메달을 놓쳤지만 미래는 밝다. 메달에 목매지 말라. 국민에게 미안해하지 말라’ 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금메달은 놓쳤지만 최선을 다한 어린 선수를 응원하는 글들을 읽고 마음이 참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며 ‘오직 금메달’만을 기억하는 일등주의 의식을 버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인내하며 지난 4년을 준비해온 모든 선수들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들의 가슴에 ‘별’(star) 메달을 새겨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들뜨게 하고 즐겁게 해주던 2014년 동계 올림픽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수를 응원하는 관객의 자리에서 내려와 각자 삶의 무대에서 선수가 되어 경주할 때입니다. 우리도 올림픽 선수들처럼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게으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목표를 바라보고 주어진 일에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두가 하늘의 시상식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성 파편을 넣어 만든 금메달이 아니라 12보석으로 만든 메달을

수상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목표를 향해 달린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 칭찬하시며 금메달보다 더욱 아름답고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4).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25).

3.1절기념 평화통일 소망기도회

OC교협·OC SD민주평통 공동주최

3.1절기념 평화통일 소망기도회가 2일 오후4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와 오렌지카운티 SD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회장 권석대) 공동주최로 열렸다.



OC교협과 OC,SD 민주평통이 공동주최한 3.1절 기념 평화통일 소망기도회에서 박용덕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송규식 목사(OC교협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가수 정하운 자매가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불렀으며, 김기동 목사(OC교협 부회장)가 대표기도를, 이은례 권사가 특별찬양 했다. 이어 신복수 장로(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의 성경봉독 후 박용덕 목사(OC교협 이사장)가 “우리가 들어야 할 것발”(시60: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날 사회를 바로잡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지도자급 되는 자들 역시 잠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삼일절은 95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었지만 그 희생은 헛되지 않고 조국해방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 됐다. 역사 속에서 겪은 고난, 고통, 가난이 근면, 성실, 열심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DNA로 바뀌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됐다. 우리는 조국통일이라는 대과제를 지니고 있다.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 눈으로 조국통일 보길 소망한다. 이 모든 예배 기도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호를 위해, 김영찬 목사(OC 목사회 회장)가 “북한이탈 주민의 안전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허귀환 목사(중부교협회장)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 도덕적 회복을 위해”, 민승기 목사(OC교협 부회장)가 “차세대 정체성회복과 신앙계승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3.1절 기념 동영상이 소개됐으며 한광성 명예회장(OS SD 평통)이 인사의 말씀을,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가 감사의 말씀을, 오득재 회장(OC 한인회)이 축사를 했으며 참석자들이 3.1절 노래와 통일 노래를 합창한 후 최승구 목사(OC 원로목회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 행사는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나침반교회와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에서 영상을 통해 동시에 진행했다.

(박준호 기자)

박용덕 목사는 “삼일절은 1919년 3월1일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 발표해 독립의지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16명이 포함되어 있다. 목사 10인 전도사 1인 장로 2인 그 외 평신도 등 이는 기독교가 얼마나 큰일 담당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삼일운동은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으로 이어졌다. 삼일운동은 1차대전 이후 세계에 식민지 국가 중 최초로 일어난 것이며, 이 운동으로 인해 1945년 해방되는 기쁨 맛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과거 일제의 식민통치하에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오늘



찬양, 문화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세계선교를 목적으로 한 베데스다대학교 그레이스선교회 창단예배가 3월3일 저녁 본교체육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그레이스 미션 찬양단이 찬양하는 모습

“찬양과 문화 사역 통해 세계 선교 한다”

베데스다대학교 그레이스선교회 창단예배

찬양 및 문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한 베데스다대학교 그레이스선교회(이하 그레이스선교회, 대표 김승기) 창단예배가 3일 오후 6시30분 본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그레이스미션찬양단의 찬양인도와 박수진 총무팀장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베데스다대학교 교수인 백석영 목사가 대표기도를, 양재혁 목사(베데스다대학교 동문)가 성경봉독 했으며, 최명상 목사(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장)가 ‘여호와를 찬양하라’(시150:1-6)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명상 목사는 “그레이스선교회

는 음악이라는 도구로 사역하는 단체로 창단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중심의 선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그레이스선교회는 또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등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된다. 선교회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이 역사가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진 총무팀장이 선교회 사역소개와 선교회 티칭멤버를 했으며, 이영걸 부총장이 본교이사장 김성태 목사의 격려사를 대독했다. 이어서 임명패 증정시간을 가져 김승기 대표를 비롯 고문진과 이사진들에게 임명패를 증정했다.

이어서 김영찬 목사(OC한인목사회 회장), 김춘식 회장(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민경엽 목사(OC교협회장), 이정현 목사(크리스천비전 사장) 등이 축사했으며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그레이스미션찬양단의 미니콘서트로 이어졌으며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GBC 복음방송 주최 제2회 목회자 세미나

진유철 목사, 이준 목사 “공화사역” 강의

GBC 복음방송(사장 박신욱 목사) 주최 제2회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달 25일 오전 10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박신욱 목사의 환영사와 이준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진유철 목사와 이

준 목사(의의나루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공화사역에 대해 강의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진유철 목사는 “이웃사랑과 공화사역”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구제는 거룩과 경건에 의해 필요한 요소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주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 그것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제”라고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공화사역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쳐져서 기도의 역사 일어나는 심령처럼 공화사역 일어날 때 하나님나라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여호와께서 직접 심은 의의나루’라는 제목으로 두번째 강의의 강사



2014세계기도일예배가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예배를 마친 후 이날 순서말은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게 하라!” 주제

2014년 세계기도일 예배 성료... 예배작성국 이집트

2014년 세계기도일 예배가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게 하라!’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특별히 올해는 이집트를 예배작성국으로 지정하고 이집트의 여성과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 열었다. 남가주지역에서는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역(회장 최미란 권사)이 주최하고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총회장 정경희 권사) 후원으로 개최했다.

최미란 회장은 “너무 감사하다”고 운을 뗀 후 “이번 세계기도일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한다. 오늘 예배가 우리들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를 줬다. 이집트의 어려운 환경과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 특별히 준비된 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지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유는 2세들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이 개교회 사역에 치중하다보니 연합사역에 대

해 소홀히 하시는 것 같다. 앞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세계에 흩어져있는 필박받고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위해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미란 권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에서 ‘부름과 응답’ 시간의 인도자는 이린애 장로(선한목자장로교회), 특별찬양 험시바 노래선교단(지휘 정희숙 반주 박은하), 대표 기도 최순자 사모(남가주전도회연합회), ‘고백과 기원’ 시간의 인도자는 태란영 권사(라팔마연합감리교회), 낭독자 1은 홍수지 권사(동양선교교회)였다.

‘감사와 찬양’ 시간에는 금란연합감리교회 여성도들이 ‘생명의 열쇠를 지니고 머리를 연꽃으로 치장한 고대 이집트인’(여성1), ‘물동이를 인 시골 농부’(여성2), ‘노트복을 들고 있는 평범한 도시인’(여성3), ‘휴대폰과 이집트 국기를 들고 있는 청바지 차림의 소녀’(여성4)의 역할을 맡아 이집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꿈과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

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낭독자 2는 이영인 집사(온누리교회), 특별찬양은 CTS 여성합창단(지휘 김영옥, 반주 이지영)이 맡았다.

또 ‘말씀과 선포’ 시간에는 라팔마연합감리교회 여성도들이 해설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으로 분해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드라마로 재연했다. 이 시간 특별찬양은 캘리포니아 마스터코랄(지휘 김원재, 반주 신유희), 설교는 요한복음 4장 3-42절을 본문으로 미주평안교회 임승진 목사가 전했다. 말씀의 응답을 인도한 이는 정의희 권사(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 전 총회장/동양선교교회)이며, 다함께 응답송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불렀다.

‘봉헌’시간에는 이영희 권사(드림교회)가 헌금이 쓰일 곳에 관한 설명과 대표 기도를 맡았다. 이날 드린 헌금은 올해 기도문 작성국인 이집트와 세계의 불우한 사람들과 결식아동들, 그리고 노약자와 장애자, 선교사들에게 전달된다. 특별 찬양은 헤세드글로벌예수선교회(단장 김정미 목사)가 맡았다.

‘중보기도’ 인도자는 석승연 권사(온누리교회)로, 1)이집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기를 2)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성들과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3)한국과 미국, 각 지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4)이민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제목으로 다함께 합심기도를 드렸다.

‘사공과 축복’시간에는 다함께 “오 신실하신 주”를 부르면서 세계 평화, 복음 전파, 한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을 다짐했다. 이후 회장 최미란 권사의 광고, 이상훈 목사(성광장로교회)의 축도로 2014년 세계기도일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시애틀 한인사회단체 공동 3.1절 기념식 장면

기도로 시작...독립유공자 자녀들 참석

시애틀 한인사회단체 공동 3.1절 기념식 성황

시애틀 한인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이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3월 1일 오전 11시 페더럴웨이 코앰플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독도, 위안부 등 한일 간에 과거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애틀한인회, 타코마한인회, 페더럴웨이한인회 등 3개 한인회가 모처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위싱턴주 각 단체장 등 1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주완식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기념식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독립유공자 자녀인 안선균 장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코카한국학교 ‘킷츠 오브 갓’ 어린이합창단이 삼일절 노래를 부르는데 이어 송원완 시애틀총영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다.

홍윤선 시애틀한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일본을 개탄하고 “독립운동 희

기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자를 우리주변에 남겨두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 도시에 가난한 영혼이 있는 것은 복이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다. 구제사역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이 목사는 “세상의 구제와 우리의 이웃사랑은 다르다. 세상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것이

생선열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우리도 힘을 합해 서로 도우며 앞으로 나아가자”며 한인사회의 단결을 강조했다.

제임스 양 타코마한인회장은 3.1운동의 전초가 된 무오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힘이 있어야 살고 뭇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독립유공자들에게 고개숙여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온 이희정 페더럴웨이한인회장은 기념사 대신 질 퍼렐 페더럴웨이 시장이 이날을 시의 ‘독립운동의 날’로 선포한 사실을 비디오를 통해 전했다. 퍼렐 시장은 삼일절의 중요성을 인정, 이날을 한국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독립을 외친 날로 선포한다는 시의 인증서를 박영민 전 페더럴웨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준배 미주한인회총연 서북미지역회장은 기념사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키워야 한국의 주권을 영원히 지킬 수 있다”며 “한국의 내일을 위해 3.1정신을 계승하자”고 강조했다. 이준결 전 평통 시애틀협의회장과 신호범 전 주상원의원도 기념사를 했고 참가자들은 3.1운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색바랜 사진으로 구성된 동영상을 보며 독립운동 당시의 상황을 되새겼다.

또한 김광호, 안선균 등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4명에게 이광술 시애틀한인회 이사장 등 한인 인사들이 감사의 꽃다발을 증정하는데 이어 이들 독립유공자 자녀의 선장으로 참가자 전원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삼창을 외치며 이날 행사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3월 5일부터 사순절... 한국교회 40일간 새벽기도·이웃돕기 속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四旬節). 올해는 오는 5일부터 4월 19일까지다. 이 절기는 예수부활 46일 전인 '재(齋)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시작해 부활주일 전야까지 40일간을 말한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20일이다. 이 기간의 주일(모두 6일)을 제외하면 꼭 40일이 되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한다. 이 절기는 특히 예수 고난과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사순절을 교회의 주요 절기로 지키기로 한 것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였다. 이후 수세기 동안 교회는 금식 기도를 드리며 엄격히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한국교회도 매년 사순절이면 묵상집 등을 보내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지내도록 독려하는가 하면 교회별로 특별새벽기도회, 금식기도회 기간을 선포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또 성도의 불필요한 소비는 없는지 점검하고 구원 및 부활과 관련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도왔다.

TV 시청하지 않기 등 문화금식 운동, 사랑의 헌혈과 장기기증, 소외이웃 돌봄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성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목회자들은 각별히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내면을 살피는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리

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족과 함께 가까운 교회의 새벽기도나 금식기도, 십자가 기도회에 참석할 것을 권했다. 또한 성경 읽기나 성경쓰기, 성경 암송 등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신앙자세라고 말했다.

서울역 나눔공동체 박종환 목사는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광야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때"라며 "우리에게 사순절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성진 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는 "사순절은 성탄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 중 하나"라며 "사순절 기간에 금식과 같은 영적 훈련을 통해 소외 이웃을 돕는 등 영혼이 더욱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는 사순

절을 맞는 자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순절에 소외 이웃에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교계와 성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북구호단체인 국제사상재단은 사순절에 '북한 결식 어린이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펼친다. 국제구호개발기관인 글로벌비전은 사순절을 맞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2014 고난주간 지구촌 빈곤아동돕기 한기금식 캠페인-생명의 지킴이(米), 사랑의 나눔이(米), 소망의 복음이(米)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기도 고양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금식기도에 동참해 모은 헌금으로 북한 결식 어린이 등을 돕는다. 서울 연동교회와 명성교회, 정주서남교회, 포천 감리교회 등 전국 각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 등을 열어 성도들의 영성 회복에 주력한다.

중대형 교회 새신자 48.4%가 수평이동 교인 신학논총 91권 '한국 개신교의 새신자 구성...' 수록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에 10년간 출석하던 한모(29·여)씨는 얼마 전 서울 시내 다른 교회로 옮겼다. 한씨는 "최근 2-3년 동안 담임목사의 신상문제로 교회 분위기가 시끄러워 지면서 회의를 느꼈다"며 "같은 이유로 다른 청년부원 10여명도 교회를 옮겼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만나교회(김병삼 목사)는 매년 2000여명의 새신자가 찾아온다. 김병삼 목사는 "새신자 중에는 서울이나 인근 지역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많다"고 말했다.

26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권에 수록된 '한국 개신교의 새신자 구성과 수평이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교회 새신자의 절반가량은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수평이동 성도'였다.

연구를 총괄한 서울신대 기독교 신학연구소 최현종 선임연구원은 지난 2년간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충청도 등의 교회 30여 곳을 대상으로 수평이동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는 성도 수 1000명 이상인 중대형교회 48곳, 중형교회(301-999명) 66곳, 중소형교회(101-300명) 75곳, 소형교회(100명 이하) 127곳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회의 새신자 구

성비율을 계산한 결과 수평이동해 온 성도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종교가 없던 사람(41.4%), 개종한 사람(15.2%) 등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대형 교회가 새신자 중 수평이동해 온 사람이 48.4%로 가장 많았다. 중소형 교회는 40.3%로 가장 적었다. 교단별로는 장로교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감리교(43.7%)와 성결교(42.6%) 순이었다. 최 연구원은 "규모별, 교단별로 차이는 있지만 모두 수평이동해 온 새신자가 40% 이상이었다"며 "한국교회 새신자 10명 중 최소한 4명은 수평이동한 성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사와 결혼 때문에 옮긴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목회자와의 갈등과 교회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뀐 신앙공동체가 수평이동의 원인이란 의견도 있다.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요즘 성도들은 과거와 달리 개척·미지향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교회에 대한 헌신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모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수평이동의 원인을 교회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95년전 그날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라 대한독립 만세' 한국교회, 3·1절 맞아 일제히 기념예배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은 3·1절인 1일 기념행사와 예배 등을 갖고 1919년 3·1운동 때 한국교회의 공헌을 되새기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최근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부일로 연세중앙교회에서 '3·1절 기념대회 및 나라사랑 기도회'를 가졌다. 한교연은 이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은 왜곡된 사관(史觀)을 버리고 주변국에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만여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은 지금까지도 강제징병 희생자와 종군 위안부 등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고 아시아

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영훈 한교연 대표회장은 "일본은 과거 국권침탈과 강제동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라 우리나라 만세"를 외쳤다. 이어 유석전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국가 지도자, 한국교회, 해외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예국단체총협의회는 1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한기총 선교장양단의 선창으로 3·1절 노래를 부른 뒤 만세선창을 했다. 성우 김도현 장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

하자 '자유 대한민국 만세'로 화답했다. 또 종군위안부를 인정하고 고노담화를 부정하며 독도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강하게 규탄했다.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은 "3·1정신은 바로 기독교 정신과 일치한다"며 "대한민국이 무저항 3·1운동과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 된다면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인권센터, 김대중평화센터, 늦봄문익환목사20주기기념사업위원회 등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3·1 민주국선언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기념대회에는 문동환 목사 등 3·1 민주국선언 당시 참가자, 정계와 교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는 음성 녹음을 통해 격려사를 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지난날 28일 서

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3·1절 95주년 기념예배 및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열고 "한국교회가 순수한 애국심으로 독립만세를 외쳤던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대화와 소통, 배려와 화합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자"고 호소했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1절 맞이 원폭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 연대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에는 한국교회 희망방사단(한교방)과 한국YMCA 전국연맹 등 기독교민단체 2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원폭2세원우회 한정순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원폭의 상처와 후유증은 원폭 2세 환우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면서 "원폭피해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유영대 백상현 박재찬 기자

임원선거 추천후보 '27명' 역대 최다 기성 5월 총회, 총회장은 현 부총회장 이신웅 목사

오는 5월 총회에서 치러질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조일래 목사·기성) 임원 선거에 총무 후보가 9명 추천되는 등 역대 최다 후보들이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임원 직책별로 복수 후보 정도 추천됐다.

3일 기성에 따르면 정기 지방회의 결과, 총회장에 현 부총회장 이신웅(신길교회) 목사, 서기에 홍승표(대전 신일교회) 목사, 회계에 정진교(서울 신광교회) 장로가 단일 후보로 추천됐다. 부서가 후보에는 2명이 추천됐다. 그러나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김정봉(인천 한신교

회), 신상범(인천 새빛교회), 유동선(춘천중앙교회) 목사 등 3명이,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6명이 추천됐다. 부회계 후보는 4명이 추천을 받았다.

후보 추천이 가장 많은 임원은 총무다. 재임을 노리는 현 총무 우순태 목사를 비롯해 김성찬(서울 양지교회), 김재운(서울 광성교회), 배진구(신안교회), 구금섭(부천 큰나교회), 양기성(청주 뉴월교회), 조이철(야산교회), 김진호(광주 영암제일교회), 문정식(소마교회) 목사 등 9명이 추천됐다.

이처럼 임원 선거 후보가 많아지자 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임후보 등록금을 200만~1000만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임후보 등록금은 총회장 3000만원, 부총회장 2500만원, 총무 2000만원, 서기·회계 500만원, 부서기·부회계 4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차기 선거 지지를 조건으로 담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후보 등록 후 중도 사퇴하려면 후보로 추천한 지방회 대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고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후보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다.

한일기독교의원연맹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한·일 불신의 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자'

한일기독교의원연맹(공동대표 김영진·도이 류이치) 창립 1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시상식이 2일 오후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열렸다. 3·1절 기념예배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는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과거사 부정 발언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열려 의미가 깊었다.

도이 류이치(전 일본 중의원의원) 목사는 대북 구호단체인 국제사상재단이 수여하는 영국봉사대상을 받았다. 도이 목사는 일본의 반성과 한·일 양국의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도이 목사는 "부족한 제가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돼 어깨 무겁다"며 "기독교는 정의로운 종교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독교 정직인답게 올바른 한·일 관계와 양국의 화해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은 세계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게 패인 골을 메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한일기독교의원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공

로 특별공로패를 받았다. 소 목사는 "기독교신앙과 민족사랑(롬 9:1-3)이란 주제의 설교에서 '교회가 3·1운동은 앞장 선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민족을 사랑하며 동시에 일본도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장상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회장, 정병학 헌정기도회장, 김명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전운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기독교의원연맹은 양국 전·현직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사 등을 역임한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관문성·평양을 잇는 'PPP

심자가대행진', 공동선언, 상호방문 등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 섰다. 일본 도쿄에서도 오는 12일 '창립 15주년 감사예배'가 열릴 예정이다.

세계성령중양협의회(대표회장 정인찬 목사)가 주최하고 기독교문화예술원(총재 김삼환 김용완 목사)이 주관한 제27회 기독교문화대상 시상식이 2월 25일 백석아트홀에서 열렸다.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기독교 정신을 담아낸 작품과 작가를 선정, 시상하는 이상의 각 부문 수상자는 ■음악부문 소프라노 김은경 ■오페라부문 지휘자 이기균 ■무용부문 류석훈 이윤경 부부.

제27회 기독교문화대상 시상식

1부 수상작공연에서는 무용부문 수상자 이윤경 류석훈의 무용공연과 오페라 손양원의 아리아를 테너 이동현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가 들려줬다. 또, 음악부문 수상자 김은경과 작편도 수상자 테너 신동원이 함께 출연해 축하공연을 펼쳤다.

2부 시상식에서는 김용완 정인찬 안준배 장향희 최길학 권경환 손광호 김창곤 목사가 순서를 맡아 진행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 상급, 메달이 수여됐다.

이처럼 임원 선거 후보가 많아지자 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임후보 등록금을 200만~1000만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임후보 등록금은 총회장 3000만원, 부총회장 2500만원, 총무 2000만원, 서기·회계 500만원, 부서기·부회계 4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차기 선거 지지를 조건으로 담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후보 등록 후 중도 사퇴하려면 후보로 추천한 지방회 대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고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후보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1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Fax. (02)12-436-5770 군포시 금곡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동3길 북구 문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1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15주말)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440-9000, Fax. (0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4:30 (월요일을 위한 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중랑구 독성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후 7:3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곡동 3동 713-26호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1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포동 416-2(1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팩스(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문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수지구 죽전동 419-2	신강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박재동로 17길 29(금남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신야기도회: 오후 8:30 Tel. (0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안암 제2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신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한성구 용암동 415 www.yank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	청주노인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천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뱅크비발리메이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금요성경강좌: 새벽 7:00, 9:00(30분) 금요성경강좌: 새벽 7:00, 9:00(30분) 금요성경강좌: 새벽 7:00, 9:00(30분) 금요성경강좌: 새벽 7:00, 9:00(30분)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모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3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예배: 저녁 9:00 7/14종교개혁: 오전 11:30 유. 초. 고. 청소년부: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6:3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E-mail: hanimk@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선교 펴기

케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1:11)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사기를 원하며 마싱가, 케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한 달이나 늦게 내린 11월, 12월의 비는 양도 많지 않았습니. 몇 번 비가 오더니 그쳐 버려서 밭에 심어 놓은 옥수수와 콩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물이 없어 다 말라 버렸습니. 신학교에서도 트랙터를 세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나 얼마 자라지 않고 모두 말라버렸습니. 이번 농사는 정말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농사였습니. 그런 밭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지, 저희들의 마음도 아픕니다. 1월부터는 비가 오지 않고 덥고 해가 뜨거웠습니. 그러던 2월

어느 날 너무 덥고 살기가 힘들어 불평이 나오기 시작습니. 사람들은 아프기 시작하고, 파놓은 웅덩이 물들은 모두 말라버리고, 물을 얻으려 멀리까지 가서 물을 얻고, 소들에게 먹일 풀, 물들이 없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는 꼭 광야처럼 훈련 받는 곳이에요”라고 말습니. 모두들 힘든 시간들이었습니. 불평이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힘들어도 불평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도 하게 됩니.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 지금 건기철이라 비가 올 때가 아니지만 비를 달라고 기도해볼까? 하나님여 또 한번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 이틀이 되었는데 비가 조금씩 옵니다. 그 다음 날은 바람이 엄청 불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마치 우기철과 같습니. 심지어 나이트아웃도 때 아닌 비가 폭포수 같이 쏟아지고 우박도 오니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합니. 이곳은 4월 초에 우기가 시작됩니. 2월, 3월은 굉장히 덥고 힘든 기간인데, 2월 초에 기적과 같은 비를 쏟아부어주시니, 사람들은 씨를 심어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씨를 심기

도 합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싱가 신학교
1월부터 3번째 학기를 맞았습니. 이번 학기는 3학기 중 가장 짧은 학기입니다. 3학년 학생 4명은 실수를 하고 13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 저는 이번 학기는 1학년 “조직신학 I”, 2학년 “선교학 개론”을 가르치고 있습니. 어제 학기를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반 학기가 지나고 중간 방학을 맞았습니. 이제 3주만 있으면 3월 15일에는 졸업식을 하게 됩니. 모두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케냐에서 신학생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 1학년 학생이 전혀 없는 신학교들도 있습니. 5월부터는 2014-2015년 학기가 시작되고 1학년 학생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신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천천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 학교는 벽에 플라스틱을 하고 바닥은 배란다만 남기고 있습니. 안의 문 5개, 전기, 창문, 바깥 벽 마무리, 페인트칠하는 일이 남아있습니. 계획대로라면 1월에 유치원이 개원되었어야 하지만 화장실 원이 늦어지고 있습니. 작년 11월에 화장실을 파던 사람이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만나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일을 못했습니. 3피트를 봤는데, 그 밑은 돌덩이입니다. 15피트를 파야 하는데, 돌 개기가 쉽지 않습니. 이제 9피트까지 파습니. 비가 많이 오니 물을 전부 파내고 파야 하는데, 씨 심으러 가서 일이 또 늦어 집니다. 유치원이 5월에는 시작할 수 있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전주고 학교가 있습니. 저희가 학교를 개원하면 학교등록을 방해할지도 모른다고 합니.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 방해 받지 않고 학교등록도 할 수 있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학교 일을 하던 미자이 벤슨한테 삼촌이 땅 문제로

인해 집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이 타 버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이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습니.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훈련원은 8월에, 유치원교사 대학은 12월에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 이를 위해서 기도 해주셔서 많은 선교사 후보생과 믿음 있는 유치원 교사들이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소식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나뭇잎이 나무 뜨거워 타 들어가는 것만 같아 우리 몸도, 마음도 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 그동안 힘들었던 인혜는 1월부터 University at Buffalo(버팔로 대학교)에 편입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 인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미혜는 계속 열심히 공부하며 신앙 생활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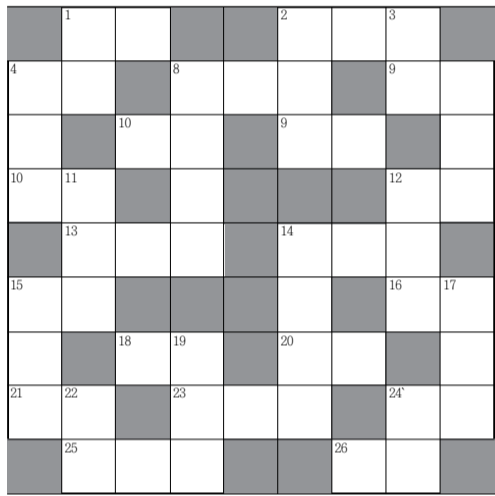
다.

기도제목입니다.
-마싱가 신학교가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군들을 길러 내고, 교수들을 위해서
-계획대로 건축이 진행되어 잘 마쳐지도록, 또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대로 5월에는 유치원이, 8월에는 선교사훈련센터, 12월에는 유치원교사대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새로이 시작되는 학교들에 학생들이 잘 들어와서 잘 훈련시키도록
-가족의 건강을 위해, 특히 부모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와 계획하고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함께 하사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사야, 이애경 선교사
isaiah.lee@aimint.net

십자말 • Cross Word (30)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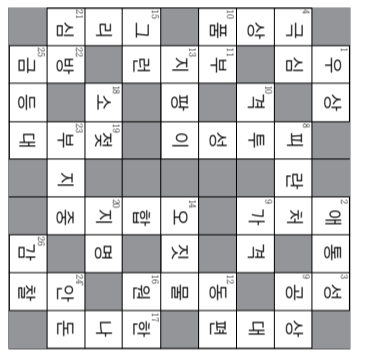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목석 또는 쇠붙이 따위로 만든 형상(사44:9).
2. 매우 슬퍼하는 소리(욘30:31).
4. 극도로 심함(호12:14).
5. 난리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곳(삼하22:3).
6. 실행할 수 없는 헛된 생각(잠6:9).
8. 서로 맞붙여 싸움(욘38:23).
9. 노래로 읊을 삼는 사람(사68:25).
10. 선전적으로 타고 남(대하2:12).
12. 해 뜨는 쪽(마24:27).
13. 길을 때에 짚는 막대기(민17:6).
14. 오지못을 얻을 때 윤을 내는데 쓰는 잣물(삼사).
15. “그리함”을 줄인 말(잠31:12).
16. 율통한 생각(에2:21).
18. 우유(삼사).
20. 여러 사람 가운데서 이름을 지정함(스 10:16).
21. 방문하여 찾아 봄(갈1:18).
23. 알지 못하는 사이(수20:9).
24. 사물을 매만져 바로 잡음(렘19:35).
25. 금으로 만든 등대(대상28:15).

<세로 푸는 열쇠>

1. 더욱 심함(사28:22).
- 유난히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국어).
- 목적 또는 뜻을 이룸(전10:10).
- 제일 좋은 물건(사5:2).
- 운동 피가 붉은 물(렘16:6).
- 맞은 편(출22:9).
- 꾸준하고 열심히 일하는 태도(잠21:5).
- 동물을 모아 기르면서 연구하고 일반에게 관상시키는 곳(상사).
-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이 질서가 없고 규칙이 없는 군중을 일컫는다(고사성어).
- 세검 서편에 있는 복을 비는 산으로 지칭되어 있음(신11:29).
- 스블른 지파에 있는 성읍(수19:14).
- 가족으로 만든 큰 물자루(삿4:19).
- 바로 이제(눅22:60).
- 자세히 살피어 조사함(왕하13:16).

십자말 정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금요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93-1977 Fax: (516)89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6:00(월-토)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917)733-7387 Fax: (516)893-1961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45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YM영어예배: 오후 1:30 화요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636-4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금요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30 (매주 1부, 3부)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8 Sl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찬양예배: 오후 1:30 청소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org Tel: (516)333-1757, 4444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영아예배: 오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스페인어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전 10: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15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ema Rd, Manhasset, NY 1103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 (732)310-0022(교회) Fax: (732)35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Astoria, NY 11369 www.kc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2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r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윤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YM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dena, CO 80005 www.kpc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현): 오전 7:00 주일2부예배(현): 오전 8:15 주일3부예배(현):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현): 오후 1:45 EYM영어: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석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한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6:00(월-토)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king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3부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91 Fax: (206)524-1746 4040 N. 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24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스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lti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9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30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루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제4시(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한/영)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6-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파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kkpczaz.org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l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54)

3. 전체 인민공동체에 대한 사역에 임해야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제까지 한인교회의 “미국 전체 사회에 대한 교육적 책임”과 한인교회의 “차세대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에 대해 우선하여 논의하였으나, 이는 지금까지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없었던 부분들이기에 먼저 다루고자 함이었던 것이지, 한인교회의 “전체 인민공동체를 위한 교육적 책임”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의 미래적 과제들을 생각해보면서 “전체 한인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특히 오늘날에는 더욱 더 중요한 일). 왜냐하면 한인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처음과 과거에도 그러하였거니와 또한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또한 그러할 것인데, 이는 거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인이민자들을 섬기는 것이며, “전체 한인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란 우리 한인

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완성된 학문적 연구의 과정 및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가늠하기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대략 전체 한인들의 20-30% 정도만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는 대한민국의 수치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셈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체 한인들을 위한 교육적 책임 즉, 교회 밖의 한인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사역에 대한 부분”이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교육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오늘 이야기의 주장을 한 30년 전쯤에 펼쳤더라면 아마도 별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것이며 오히려 뜬금없다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75% 이상의 한인들이 한인교회 두리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한인

에 적용시킨다면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우리 한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가 가르치라 명하신 바(하나님나라와 그의 구속사역)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평생 성숙해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교회 두리안에 있던 밖에 있던 말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이미 교회 두리안에 있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관심이 아직 남아있던 우리 한인교회는 좀처럼 교회 밖에 있는 한인들에 대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역자들도 이제는 “전도자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여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교육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양분된 사고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역자들의 실제 실천을 들여다보

한인 중 25%만 교회생활...전체 한인 대상 기독교 교육 필요 교회 밖 한인들 위한 교육에 관심 갖고 균형 있는 사역 실행

교회는 교회 두리안에 있는 한인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두리밖에 있는 전체 한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주요한 미래적 과제를 하나로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장입니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역사가 100년도 넘게 오랜 동안 지속되어오고 이와 함께 한인교회의 역사도 유구해지면서 한인들과 그들의 신앙 및 종교적 활동은 점차 미국사회에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계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한인들과 그들의 교회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인들(Korean Immigrants: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및 그들의 자녀들)의 75%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교회들은 매우 놀랐으며, 우리 한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1980년대의 연구결과로 벌써 이미 30여 년 전의 연구결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를 고려해볼 때, 30여 년 전의 연구결과가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

들의 75%나 되는 교회 안에 있는 한인 성도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여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곧 전체 한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나 진배없었을 테니까요. 그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역적 우선 순위였을 것이며, 실상 바람직한 사역적 선택과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전체 한인들의 20-30%만이 교회 두리안에 있는 현실을 두고 생각해볼 때, “전체 한인들을 위한 교육적 책임(즉 교회 밖의 한인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사역에 대한 부분)이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미래적 교육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교육사역적 선택과 판단은 교회밖에 있는 한인들을 섬기는 일에 이전보다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그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독교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결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로서 일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도록 양육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를 우리 한인교회의 상황

면, 아직까지는 기존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혹은 계속해서 해온 주일학교 사역만이 기독교교육이라는 생각을 접지 못한 듯한 사역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인들의 70-80%가 교회 두리밖에 거하고 있는 지금은 분명 그 래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교육사역에만 집중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교육사역은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의 실질적 근간이며, 현재 교회 밖에 있는 한인들에게 점차 더 깊은 교육을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므로, 이것 없이는 “전체 한인들을 위한 교육적 책임” 자체가 수행 불가능하며 또한 그 의미도 퇴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의식적으로 교회 밖의 한인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두고, 균형 있는 사역을 고민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라 하라하신 모든 우리 한인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고자 하는 교육적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약속된 능력(눅3:1-14)찬257장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합니까? 첫째, 믿음이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능력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부으시는 예언일지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성경이 모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나기 까지 말씀 앞에 진실되어 서야

합니다. 불리한 환경인 빈들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을 입게 됩니다. 둘째, 고정관념을 깨고 겸손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고정관념이 매우 위험합니다(8). 과거의 경력, 현재의 호조건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능력의 길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 시대에 참회와 믿음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화 하나님나라의 현장(눅5:27-39) 찬364장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먼저 통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나라는 인간 사상을 초월해 어떻게 임합니까? 첫째, 환경과 상관없이 임합니다. 레위인 마태를 세관에서 부르신 후 그의 잔치에 초대하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과 함께 잔치음식을 먹는 것과 금식보다 잔치에 더 치중하는 점”에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4가지 비유(의원, 금식, 새 옷, 새 포도주)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미 임했고 자신은 그 나라 왕 되심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이 다스리는 자리는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나라는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장소에 임했습니다. 그 왕은 있는 그대로의 현장에서 친히 일하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30-31). 셋째, 새 시대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시대의 가운을 벗고 복음시대의 진리 속에서 온전해지고 자유해야 합니다(38-39).

수 현신의 모본(눅7:36-50)찬71장

육함을 깨트리 주님을 섬긴 이의 현신의 본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다룰 본으로 나타난 본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감격스러운 현신의 본을 보입니다(41).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자신의 소중함 육함을 깨뜨림은 산 제물로서의 삶의 그림입니다(롬12:1-2). 나의 육함인 나의 지성, 재능, 나의 삶을 주께 바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 잔치에 먼저 대접받은 자만이 주님을 바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43).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오라고 초청하신 주님은 오는 자마다 힘을 주십니다. 이 감격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바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잔치 대접의 주인공이었으나 실상은 죄사함 받은 무명의 여인이 주님을 대접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만이 하나님나라 왕으로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50).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기위해 이 날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목 하나님나라의 현주소(눅9:28-36)찬492장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나라를 밝히 보여준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십자가 중심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별세가 모든 계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전파되고 새로워집니다(31). 둘째,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잦아도 그들의 의지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그 세계를 본 것입니다(32). 능력이 동반되는 것은 기도할 때 일어

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십자가 중심을 배우는 시간이며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시간입니다(28). 셋째,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나라의 황홀경을 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중심할 때 모든 일이 잡히고 풀려지고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조막 셋을 짓겠다는 허황된 말을 했지만 그 영광을 보고 난 아름다운 반응은 우리도 필요합니다(33).

금 그 나라가 임한 증거(눅11:14-26)찬353장

이 땅에 임한 하나님나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본문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귀신을 쫓아냄이 그 나라가 임한 표적 중 하나입니다. 싸인은 실재를 가리키듯 귀신이 도망가는 일은 그 나라의 임재가 실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임한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아니 그 분이 이기기만해도 마귀는 도망가고 새 역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곤고한 순간에도 주님의 나라는 그 속에 놓여있습니다. 둘째, 더 강한

자로 오신 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마귀와 죄악과 육체소욕을 다 치리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분이십니다. 일곱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 와중에서 구하시니 그분의 뜻을 좇아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강한 소욕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갈5:24). 우리의 삶에 그 증거를 확인합니다.

토 청지기의 삶(눅 12:35-48)찬503장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인 그리스도인은 인자께 모든 것을 드러야 합니다. 인자의 뜻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현재의 일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40). 그래서 복있는 자의 삶을 가르칩니다.

첫째, 복있는 자는 주인을 항상 기다려 깨어 섬기는 종입니다(39). 혼인집에 늦게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밖에 서 기다리는 종은 주님이

마련한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성실한 청지가 복됩니다. 둘째,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은 주님, 나는 그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steward)는 소유권이 없고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매니저에 불과합니다. 시간, 물질, 건강 등의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 항상 주인에게 보고할 일을 생각하는 종말의식이 필요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4.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Dates: May 16(Fri) - 19(Mon), 2014
- Place: Toronto, Canada

3. Examination Subjects

- Written Test: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Written Assignment: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OT Exegesis Text - Leviticus 21:1-9
- NT Exegesis Text - Luke 16:19-26
- Thesis Topic - Plagiarism and integrity
- Sermon Text - ① NT: 1 Corinthians 15:1-1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4.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4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0-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6-20) through Rev.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Se Young Han / Address: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E-mail : syhan91@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amuel Heo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e Young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quires in English :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총회장 : 엄영민 목사 서기 : 고택원 목사 고시부 부장 : 허상희 목사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인/터/뷰 한국화 화가 유혜은(주님세운교회 집사)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화가 유혜은 집사가 룻기 전체를 화폭에 담아낸 한국화 전시회가 미주복음방송사(사장 박신욱 목사) 4층에서 열렸다. 흥년을 피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그곳에서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는 슬픈 이야기로

기도 했다. “미국에 왔는데, 알마나 꽃이 아름다운지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꽃들과 장엄한 나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은 제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전시회 때는 꽃그림을 담아 전시회를

요. 그때 룻기를 대하면서 자식과 부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해 많은 것을 깨닫고 룻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리라 다짐했었죠. 그런데 룻기가 완성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 고난 중에 만난 룻기. 이

책으로도 꾸며질 예정인데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일자를 말할 수 없다”고 환하게 웃는 유작가의 말속에 아쉬움이 서려 있었다.

“이번에 미주복음방송에서 이렇게 귀한 공간을 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또 전시회 방송을 들으신 분이 이처럼 질 좋은 팸플릿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작은 사이즈도 만족하다 했는데 이렇게 좋은 팸플릿을 해주셨어요. 또 이번 전시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그림을 매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몇 번 더 룻기 전시회를 가지고 싶은 생각에 아직은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후에 책으로 만들어지면 그때



룻기 전체 화폭에 담아... 엽서, 책으로도 출판 계획

시작되는 룻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나와 유대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후 놀랍게도 예수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도록 하셨다. 이 룻기를 읽는 이들은 이 속에서 부모와 자식,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곤 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읽던 룻기를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유혜은 화가가 화폭에 담아낸 전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 주고 있다.

룻기 전체를 60여점의 그림으로 표현한 유혜은 화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대만문화대학에서 미술사를 수학했다. 까맣게 갈아낸 먹물로 자연과 사물을 담아낸 유 화가는 남편이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미국생활을 시작했다. 유학생의 아내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는 간간히 개인전을 갖고 한국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품어냈다.

그러던 유 화가는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한국 미술계에서 활동해오다 2004년, 이번엔 막내가 유학을 오게 되면서 다시 LA의 삶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유 화가는 본격적으로 시간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동양화의 특징이 그러하듯 유혜은 화가도 모든 자연을 소재로 화폭에 담았지만 특히 LA의 꽃과 나무에 반해 꽃 그리기에 푹 빠지



했어요”라고 꽃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던 유화가가 룻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10년 만에 미국에 다시 오니 아무리 살던 곳이었다 해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장로님이 인도하는 성경공부에 참석하면서 룻기를 공부했지

를 배경으로 해서 그랬는데 감각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색조를 사용해 낮을 배경으로 하여 결혼식 장면을 묘사했 습니다. 그러다 보니 룻기를 완성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라고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제 완성된 룻기의 작품들은

원하시는 분께 양도하려고 합니다. 공간만 허락이 되면 어디든 기쁨으로 전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부탁드리 는 것은 공간이 그리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실 분들이 계시면 너무 감사 하겠어요”라며 전시장을 대여해 준 복음방송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소망을 표했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은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유대 땅 베들레헤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모압 땅에서 맞은 두 며느리,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두 자부들과의 이별 장면들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또한 룻과 나오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유대 땅을 향하는 발걸음과 보아스와와의 만남, 결혼, 오벳의 탄생 등을 통해 룻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냈다.

이 외에도 그림으로 엽서를 만들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유 화가는 Hisstory Production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LA 한국교육원 한국화반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혜은 화가의 룻기 한국화 전시회 장소를 제공할 분이나 전시회에 관한 문의는 (310)347-1481 이나 heieunwoo@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투고 시

이윤식 (연변 희망촌)

통일열차를 타자

“철마는 달리고 싶다”
경의선 철원역에서
70년 외친 절규요 탄식이다
이제는 노객이 되어 속성을 잃었다

통일열차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제는 열차에 연료를 붓자
기름이나 석탄이나 쇳물이 아니다
사랑과 화해, 평화와 헌신...

그리고
불을 지피자
지금 바로 그때다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을
더 크게 더 많이 불을 지피자

통일열차
온 겨레의 길이요 생명이요 복음이다
우리 다같이
통일열차를 타자

(7면에서 계속)

즉 세속주의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갖고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속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신비적이고 고립적인 영역으로 도피해 버렸다. 이에 반해서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主)가 되신다는 것이다. 바로 카이퍼의 정치철학은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 카이퍼는 더욱 확신 있게 말하면서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구속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운명과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그가 온전한 명령자이시며 절대적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빛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다.

카이퍼의 칼빈주의 신학은 구원론적이기보다 우주론적이다. 그러므로 카이퍼의 시야는 훨씬 광범위하고 우주적이다. 그래서 그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도 이러한 신학적인 바탕위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데 있었다. 즉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의 통치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의 질서와 개체 속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영세적인 생각이나 비관적인 삶 그리고 이원론적(Dualistic)세계관은 칼빈주의자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카이퍼는 고백하기를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장소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전 인격과 능력과 은사 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 존재하며, 살아가며, 고통 받으며, 책임을 감수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라고 했다.

카이퍼는 정치가 즉 기독교 정치가이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신학자이며, 일반은총의 신학자이며, 성령의 신학자였다. 카이퍼의 기독교 정치의 기초와 기반은 그의 신학적 기반위에 있었음을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만에 하나, 카이퍼가 그리스도의 왕권수립과 영역주권 사상이 없었던다면, 그는 목회자를 떠나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카이퍼는 기독교 정치가로서 칼빈주의적 이상을 마음껏 펼쳐 본 셈이다.

(다음호에 계속)

미주 갈멜산기도원 축복기도성회

기간 : 2014년 4월 24일(목, 저녁)부터 30일(금, 저녁)까지
시간 :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2014년 월별 부흥성회 일정

1 Jan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r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Mar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Ju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GST(신학성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철교학회 이사
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
미국 ORU(D.Min)

한국 CBS, TV “세상을 이기는 지혜 - 솔로몬” 강의 (2013년 7·8월, 11·12월 방영)

■ 다시보기 : www.cbs.co.kr/tv
■ 트위터 : www.twitter.com/cbssolomon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bssolomon
■ 유튜브 : www.youtube.com/cbssolomontv

문의

미주 갈멜산기도원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www.galmelsan.or.kr

